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공무원 문화 교양 지

2018.08

Vol.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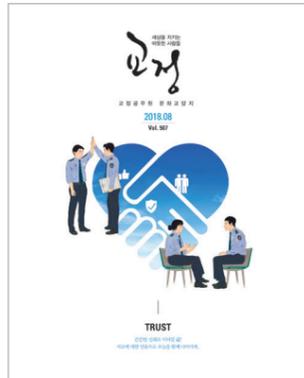
TRUST

끈끈한 신뢰로 이어진 삶!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함께 나아가자.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태양 빛에 붉은 땀방울이 흐르는 8월입니다. 쉬이 지치는 계절에도 오늘을 성실히 일구는 당신을 월간 <교정>이 응원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8월호 (통권 507호) 62면 8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4 취임사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 08 포토 이슈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임용장 전수식

Colorful Think

- 10 Theme Column
8월의 컬러, BLUE
쉬이 변하지 않으리란 믿음으로
- 12 Theme People
하태훈이라는 목직하고 정의로운 영향력
교정자문단 위원장 하태훈
- 16 Theme Talk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닿다
의정부교도소
- 20 Theme Advice
너와 나를 잇는 끈, 신뢰



Cheerful Life

- 22 교정은 행복을 신고
불꽃의 테니, 여름보다 강렬한 무대를 선물하다
밀양구치소
- 28 아빠! 어디가?
달콤하고 향기롭게 빛은 우리 가족 추억
충주구치소 교도 우현도 가족
- 32 어느 멋진 날
동료들과 '제주도 푸른 저녁'
제주교도소 총무과 교사 홍지호, 교도 우창호, 보안과 교도 박선아
- 36 패밀리 프로젝트
봉사는 풍요롭게, 믿음은 끈끈하게
- 38 습관의 건강학
모두가 잠든 사이, 당신은 눈 뜨고 있나요?
- 40 히어로 코믹스
세상을 어지럽히는 판지맨과 힘을 키우는 교정맨
- 44 교정 인사이드
사형수에서 법대 졸업생이 되기까지



Correction Story

- 46 교정 글마당
대구구치소 사회복귀과 교정관 정인식
- 48 교정 포커스
참신한 아이디어로 설계하는 내일의 교도소
- 50 교정 리포트
수용자 인권에 취약한 현 징벌제도 개선을 위한 ICP(Independent ChairPerson)제도의 비교 연구(개인훈련)
- 56 지상강좌
교정학
- 58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6 교정 인스타그램
신뢰를 담은 사진 열전
- 68 BOOK MARK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책들





희망이 가득한 교정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Message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임 교정본부장 최강주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교정본부를 헌신적으로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전임 김학성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수용관리와 교정 교화에 최선을 다해주신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7대 교정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교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과 영예보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정현장과 지방교정청, 교정본부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교정문화를 조성하고, 재범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정이 되도록 조직을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교정은 심각한 과밀 수용과 어려운 국가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인력 부족은 물론 기본적인 수용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교정업무를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환경과 수용자 권리의식의 향상은 끊임없이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교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교정 조직이 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 속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직원들의 근무체계와 환경을 개선하고, 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하는 따뜻한 교정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교정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정본부와 지방교정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분장과 역할을 재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상급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정은 선후배, 동료 사이에 따뜻한 인간미와 끈끈한 동료애가 넘쳐나 다른 직렬 직원들이 부러워하던 조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상호 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되살려 성숙된 교정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운영에 있어서 교정업무의 중요역할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교정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교정인으로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 내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교정정책에 대해서는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기사형태의 보도를 포함해 다양한 맞춤형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분야별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정조직 전체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교정공무원은 물론 국민들도 교정 조직의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수용질서와 수용자의 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조직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에 근거한 엄정한 수용질서는 모든 수용자를 공평하게 처우하고 그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준비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동시에 직원들의 근무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도주 등 교정사고는 지역사회에 불안을 초래하고 국가의 치안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예단과 타협을 배제하고 보안의 기본적인 직무원칙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수용자에 대한 처우 수준은 그 국가의 인권 수준의 척도라고 합니다.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의식주는 물론 각종 의료처우를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과가 의심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수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수용자에게 있어 가족은 희망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회복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과제인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국가기관과 협력하고, 교정의 주인이 시설 건축에 참여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밀 수용과 관련한 수용인원의 추이, 국가정책 방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이해와 관련 국가기관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교정업무 가운데 형사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와 관련한 업무는 다른 어느 조직보다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교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 등 사법 관계기관은 물론 의료, 복지, 교육, 취업을 포함하는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기관 간의 협동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은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이자 수용자가 사회 복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교정의 주인이 교정 시설 건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혁신적인 교정 시설 모델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은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다중시설이므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상시체제를 구축하여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하고

안정된 조직을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저는 교정본부장인 동시에 교정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정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2년의 시간을 마주하면서 후한서에 나오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공동 운명체’라는 의미로, 한마음 한뜻으로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향해하는 중에 때로 높은 파도가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차분히 역경을 이겨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교정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교정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즐겁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국가와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하고 안정된 조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 7. 1.
법무부 교정본부장

최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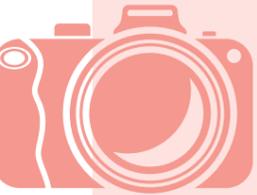


Photo Issue

7월, 교정본부는 새로운 교정보부장의 취임을 알리며 다시금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임용장을 전수받고 본격적으로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이루어나갈 최강주 교정보부장은 우리에게 어떤 각오를 전했는지 들어보자.

최강주 법무부 교정보부장 임용장 전수식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3일 최강주 신임 법무부 교정보부장에게 임용장을 전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강주 신임 교정보부장에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의 구현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강주 제7대 법무부 교정보부장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교정간부(31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29년간 근무하며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인천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등 교정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교정의 날 업무유공자로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최강주 교정보부장은 "교정행정의 비전이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으로 새롭게 재정립된 만큼, 교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교정조직 전체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교정공무원은 물론 국민들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교정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처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강주 교정보부장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교정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정이 되도록 조직을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며 교정행정 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최강주 법무부 교정보부장 프로필

주요경력	2017. 2 ~ 2018. 6	제26대 대전지방교정청 청장
	2016. 9 ~ 2017. 2	제30대 광주지방교정청 청장
	2015. 8 ~ 2016. 9	제55대 서울구치소 소장
	2015. 2 ~ 2015. 8	제24대 인천구치소 소장
	2012. 7 ~ 2014. 1	제56대 광주교도소 소장
	2010. 8 ~ 2012. 7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수상경력	2009. 7	법무부 의료과장
	2005	대통령 표창

쉬이 변하지 않으리란 믿음으로

땅 위에 놓인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제 모습을 조금씩 잃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 반면 하늘은 어제, 내일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늘 같은 배경 색에 크고 작은 구름들을 띄울 뿐. 그래서일까. 우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할 때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곤 한다. 저 위에서, 평소와 한 치도 다르지 않게 빛을 전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 하늘. 그 배경을 채우는 색, '블루'다.

물을 채우는 색

블루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다. 유럽과 미국 등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깔 1위로 블루를 꼽는다고 한다. 늘 보지만 닿을 수 없는 미지 '하늘'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바다'가 블루를 띠기에, 우리는 늘 블루를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땅에 단단히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블루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은 색이다.

레드가 '불'을 상징한다면 블루는 '물'을 의미한다. 실제로 물은 투명하지만, 우리가 물을 표현할 때 블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다'의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바다의 깊은 곳까지 투과하는 블루가 작은 미립자에 의해 반사되면서 바다는 블루를 띠게 된다고 한다.

불이 언제든 쉬이 사라질지 모르고, 위험이 될 수 있는 존재인 반면 물은 불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물은 불이 없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상징하는 블루를 신뢰의 색이라고 부른다. 여덟 시 뉴스의 데스크 배경이 블루이고, 은행이나 기업에서 '블루' 로고를 활용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블루

하늘과 신의 이미지는 가깝다. 블루가 신의 이미지로도 쓰이는 이유다. 이집트의 창조신 아문은 파란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늘을 날 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인도의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의 형상을 한 크리슈나 신 역시 파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신은 인간과는 다른 세계인 하늘에서 사는 것으로 곧잘 묘사되었으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색이 바로 블루였다.

신체 그 어디에서도 블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대신 블루를 입을 수 있다. 제복 등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색이 블루인 이유가 있다. 단파장 색인 블루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블루로 칠해진 공간에서 일할 경우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누군가와 신뢰가 필수가 된 요즘이다. 모든 것이 쉽게 변하고, 쉬이 증발해버리는 시대. 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서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더 블루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블루는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색이다.

• BLUE

8월의 컬러

깨알 지식

'about BLUE'

한때 온라인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음식에 '블루'를 입힌 사진들이었다. 실제로 블루는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다. 체감온도가 낮게 느껴지는 블루를 보면 신체적 활동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파란색 색소를 쓴 음료를 제외하면, 실제로 파란색 음식이나 식재료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이름이 곧 목직한 영향력인 이들이 있다. 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룬 뉴스에서는 하태훈 교수가 그렇다. 고려대 법대 졸업 후 독일 쾰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형법 분야 석학인 그는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범죄피해자학 등 형사법 전 분야에 걸쳐 값진 교육과 연구업적을 쌓았다. 그런가 하면 연구실 바깥에서는 사회참여형 학자로서 이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로 주목받아왔다. 교정정책자문단도 그중 하나. 권력엔 감시의 잣대를, 소외된 인권엔 따뜻한 관심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일에 주저 않는 정의로운 영향력, 하태훈 교수를 만났다.

하태훈이라는 목직하고 정의로운 영향력



세 명의 은사에게 배운 인생 최고의 선택

흔히 성정이 곧 목직한 사람이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신뢰를 쌓아온 하태훈 교수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의 전형이지만, 살아온 내력을 들춰보면 예나 지금이나 법과 친밀하다.

“초중등 시절을 공주에서 보냈는데, 바로 앞이 재판소였어요. 재판소를 놀이터 삼아 드니다 보니, 어릴 때부터 법이 낯설지 않았죠.”

물론 그가 법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데는 고려대 법대 진학 후에 만난 은사들의 영향이 컸다. 즉,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일수 명예교수가 학문의 길로 이끌었다면, 지금은 은퇴한 심재우 명예교수로부터 형법에서 인권이 갖는 중요성과 사회참여형 학자로서의 방향성을 새겼다. 또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독일 쾰른대에서는 세계적 석학 히르쉬(Hirsch) 교수를 지도교수로 두면서 학자로서의 치열함과 함께 연구와 사회활동에서 촘촘하게 배어 나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 등을 배웠다.

“저마다 훌륭한 학자였던 은사들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 자부하는 형사법 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은사들이 그랬듯 저 또한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이기 전에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연구실 바깥에서는 행동하는 실천가

은사들의 영향력은 그가 이론에 몰두하는 학자에 그치지 않고 연구실 바깥에서도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사회참여형 학자로 활동하는 데도 작용했다. 학자로서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도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정의롭게 개선해나가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결심이 은사들의 삶을 보며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1991년부터 홍익대에서 교직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쓴 칼럼을 보고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속이던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이 함께 활동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게 사회 참여의 시작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사회적 이슈에 한 발짝 다가간 하 교수는 90년대 말 의정부 법조비리를 포함한 전관예우 관련 법조비리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이후 각종 사법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며 사법제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중수부 폐지, 정치검찰 발표 등의 굵직한 변화는 일관된 소신을 갖고 꾸준히 활동한 끝에 얻은 값진 성과였다. “사실 사회과학 분야, 그중에서도 법학은 보수적인 학문으로, 연구 실적을 내더라도 개혁까진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과 관련한 각종 칼럼과 여러 위원회의 이름으로 낸 목소리가 알게 모르게 실무에 적용되었고, 국회 입법 시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두루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개혁할 대상이 많지만 검찰이 시민사회의 눈치를 보는 등의 변화를 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처럼 점진적이되 분명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참여형 학자로서 하 교수의 존재감도 한층 목격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 로스쿨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거쳐 현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만 봐도 짐작 가능하다.

교정정책자문단을 통해 수용자의 인권을 살피다

하태훈 교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일컬어지는 검찰을 견제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에서 비껴나 있는 이들의 인권을 살피는 데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2013년 6월 출범과 더불어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정정책자문단이 그 예다.

“인권 분야에서도 가장 취약한 수용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교정정책자문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범죄자에게 자유를 제한받는 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까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짚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픈 바람도 있었어요.”

하 교수가 교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건 독일에서 유학하던 1980년대 중후반, ‘형벌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였다. 당시 서구

유럽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겁을 주는 이른바 ‘일반예방’이 주류를 이루다가, 개선교육을 통해 범죄자들을 다시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는 ‘특별예방’으로 형벌의 최우선 목적이 전환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후 독일의 수용시설을 참관하는 등 교정에 대한 관심을 키운 그는 2000년대 초반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교정프로그램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렇듯 나라 안팎에서 쌓은 교정에 대한 경험은 교정정책자문단을 통해 자문과 대안 제시의 형태로 살뜰히 활용되고 있다.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에 위촉되면서 하 교수는 수용자의 인권문제, 그중에서도 수용자의 의료건강권과 운동권 확보를 통해 이들의 인권을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현 교정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서 자문단의 역할을 찾고 있다.

“출범 5년째를 맞는 만큼 교정정책자문단 활동을 체계화하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하나의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기에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의미 있는 자문을 위해 사전에 주제를 전달하고, 매번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그간 자문단이 무엇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회의 자료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의롭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최근 하태훈 교수가 이끄는 교정정책자문단의 최대 이슈는 ‘교정시설의 과밀화’다. 현재의 교정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이상이 과밀 되어 있는 상황. 이는 기본적으로 수용자들의 인권문제이자 교정프로그램 진행에도 차질을 초래한다. 더운 여름에는 불쾌지수를 부추겨 사고발생의 위험마저 키운다. 이를 우려해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을 지금의 2배로 넓히라고 주문했지만 하 교수는 시설의 대폭 확충만이 해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교정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으로 돌아가 수용시설로 들어오는 인원을 줄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선고유예를 활용해 형사법의 부담을 줄이는 등 교정시설에 가두는 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문단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고심하는 한편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칼럼 등을 통해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정정책 또한 여론이 침투하는 속도가 더디다. 그렇다고 변화마저 미미한 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개를 가웃하게 했던 ‘수용자의 인권’이란 말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고, 수용자 중심의 교정정책이 그 가족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교정프로그램을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 또한 차차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다. 하 교수는 이렇게 되기까지 교정정책자문단 같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 못지않게 수용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잦은 빈도로 만나는 교정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강조한다.

“유학 시절 자신의 직업에 대한 독일인들의 투철한 소명의식을 보고 값진 배움을 얻었는데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교정공무원들도 소명의식을 갖길 바랍니다.”

이는 비단 교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듭 다짐하는 바이기도 할 터. 그가 법학자로서 연구와 강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하고, 사회참여형 학자로서 좀 더 정의롭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일 것이다.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이기 전에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일터는 무엇보다 '신뢰'의 가치가 중요한 곳이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일련의 과정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긴 여정이라 봐도 틀리지 않다. 의정부 교도소는 그 신뢰의 가치를 잘 다지고 있는 곳이다. 이를 통해 교정교화라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이로운 영향력까지 전파하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닿다

의정부교도소

끈끈한 동료애로 피어오르다

출발은 교도소가 아니었다. 광복을 앞둔 2년 전인 1943년, 경성형무소 의정부농장으로 지어져 교도소 주위의 땅을 경작하는 곳으로 쓰였다. 이후 1963년 서울교도소 의정부지소로 이름을 바꾸고 1966년 지금의 의정부교도소로 승격했다. 현재의 고산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1982년. 의정부교도소는 그 역사의 면면을 고스란히 새기며 긴 세월 전진하고, 성장해왔다.

교도소는 한때 140.1%의 수용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교정부부와 업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수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밀 수용인 실정. 직원들에게 근무 환경은 썩 좋지 않다. 그러나 오늘 의정부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직원들의 얼굴은 모난 데 없이 밝고 환했다.

보안과에서 근무하며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관호 교위가 미소를 지으며 나름의 이유를 전했다.

“직원들이 워낙 순박하고 따뜻해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선배 직원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는 많은 후배를 챙겨주고, 안내해주는 것이지요. 직원들의 동료애가 끈끈하고, 관계가 돈독하니 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도 자주 웃음이 번집니다.” 한관호 교위 옆에 앉은 '새내기 교정공무원' 보안과 조정래 교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니, 의구심이 들 리 없다.



긴 세월 이어져 온 나눔의 발자취

의정부교도소하면, 선행을 지속해서 펼쳐오는 자체 봉사 동아리인 '한사랑회'를 빼놓을 수 없다. 매년 불우 수용자 가족은 물론, 노인복지 시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고.

올해 초에는 지역 소년소녀가장의 딱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한사랑회 회장 김주수 교위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꾸준히 관내 불우청소년들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는 의정부교도소다. 한사랑회의 총무로서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보안과 김길용 교사가 진솔하게 동아리의 의미를 전했다.

“2000년대 초 나눔의 뜻을 가진 직원 분들이 '한사랑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 벌써 2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아리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자주 직원들이 바뀌는 가운데에도

동아리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사랑회'가 펼치는 선행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현재는 77명이 동아리 회원으로 소속돼 있어요. 앞으로도 이분들과 다양한 봉사, 기부활동을 펼치며 사회에 희망을 전할 계획입니다.”

'선의'로 가득 찬 교도소의 분위기 때문일까. 한 직원의 선행이 뉴스를 타고 유명세를 얻는 일도 있었다. 바로 앞에 자리해 있는 한관호 교위가 지난 5월 아이의 생명을 구해낸 일화다.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힌 여자아이를 하임리히법으로 살려낸 한관호 교위는 의정부소방서에서 표창을 받으며 의정부교도소의 이름을 한층 더 빛냈다. 소의 자체동아리인 '한사랑회'도, 직원 개인의 선행도 본받아 마땅하니, 그야말로 의정부교도소가 곧 '모범' 교도소라 해도 과찬이 아니다.



모두에게 선의라는 가치를

의정부교도소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전국 교정기관 중 13곳만 마련돼 있다는 심리치료센터를 통해 수용자들이 다시 범죄를 짓지 않도록 200시간 과정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단순히 수용자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의료과 직원들과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가 머리를 맞댄 프로그램으로 수용자들을 진단하고 교육하며, 이들의 심리를 실제로 '치료'하고 있다.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성남 간호서기는 일에 대한 보람이 무척 크다고 털어놓았다.

“치료를 받은 수용자들이 자주 편지를 써서 줘요. 그중에는 3번씩이나 교도소에 들어온 수용자도 있었죠. 그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교육을 받았다면, 교도소에 다시 들어올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용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교정'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의정부교도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직원들과 수용자를 대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김진구 소장이 직원들을 위해 손수 사비를 털어 간식을 선물하기도 했다. 수고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는 기관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엄중한 처우를 하면서도, 때론 강당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등 인간적인 배려도 제공하고 있다.

인터뷰 내내 의정부교도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 그리고 본분을 넘어 사회에 이로운 영향력을 선사하는 점까지. 안에서는 서로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물들이니, 짧은 시간 직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라. 업무가 힘들어도 이처럼 선의를 가진 동료들이 주변에 많다면, 그곳이 최고의 일터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든 시간이었다.

의정부의 가 볼만한 곳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8년에 해호스님이 여왕의 명에 의해 왕실의 용성을 기리고자 창건하였다고 한다. 대웅전 동쪽에 토끼 모양의 바위가 있고, 남쪽에는 달 모양의 월봉(月峰)이 있어 마치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서 절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예로부터 고려시대의 헤거, 영소대사와 조선시대의 천봉, 영월, 도암 등 많은 명승들은 물론, 도인이라 불리는 만공, 한암, 성월 등 선지식들이 지낸 곳이기도 하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1999년 개관 이후,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의정부 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와 서울 동북부 지역의 '문화 공급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함과 동시에 중저가의 관람료를 책정해 서울 관객들도 자주 찾는다. '국제음악극축제'와 문학축제인 '천상병 예술제' 등 의정부 예술의 전당만의 브랜드 축제를 꾸준히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문화의 장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Theme Talk



우리에게 전해진 '신뢰'의 한 장면

교감 신순자

총무과에 있다 보면 참 많은 행사를 계획하게 돼요. 그때마다 동료들이 협력해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팀장으로서 무척 감동할 때가 많죠. 든든히 함께 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늘 마음이 놓입니다.

교위 한관호

조사실에서 다양한 수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는 직원을 이용하려는 수용자도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수용자들도 있어요. 이에 따라 처벌을 내리거나 훈방조치를 하며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신뢰 가는 교도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려고 합니다.

교사 김길용

힘든 업무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한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늘 동료들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 믿음 덕분에 지금도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동력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교도 이종훈

민원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면회 오시는 가족분들 중에 허엽없이 우는 분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때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줘야 그분들이 추스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방문객에게 신뢰를 드리고 싶어요.

교도 조정래

올해 1월 교정공무원이 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처음 근무했을 때 수용자들이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일처럼 달려와 주신 선배님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선배님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간호서기 노성남

심리치료프로그램은 함께 의견을 맞대야 하는 만큼 교도소 동료들, 업무 관계자들과 서로 신뢰하며 의견을 모아야 할 때가 많아요. 수용자의 재범 방지라는 그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하는 동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믿음이 갑니다.



너와 나를 잇는 끈,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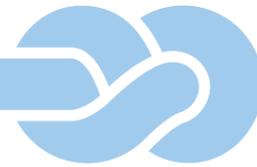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 요소

외계인과 인간의 교감을 다룬 영화 '컨택트'. 외계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언어학자 루이스는 외계인들에게 '당신들은 왜 지구에 왔나요?'라는 질문을 던진 후, 외계인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 노력한다.

루이스 역시 외계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뢰가 부재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유리 벽 밖에 있던 외계인과 방호복 없이 마주한다. 정체불명의 생명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외계인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 루이스. 그녀는 결국 외계인이 인류에게 내놓은 '답변'을 해석하는데 성공한다.

영화는 얘기하고 있다.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이다. 그 상대가 외계인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관계든지 성립이 되려면, 신뢰라는 요소가 필수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오래갈 수도, 끈끈할 수도 없다. 신뢰는 관계를 이어주는 끈과 같아서, 신뢰가 단단할수록 관계도 돈독해진다.

물론 신뢰를 쌓으려면 기본적으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루이스가 방호복 없이 외계인을 마주한 '노력'을 펼쳤듯이 우리도 누군가와 신뢰를 구축하려면 나 자신의 무언가를 내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RUST

신뢰는 관계를 이어주는 끈과 같아서, 신뢰가 단단할수록 관계도 돈독해진다.

신뢰의 뜻을 가진 'Trust'의 어원은 '편안함'을 뜻하는 독일어의 'Trost'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쓰곤 한다. 서로 간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다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단지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나의 디테일까지 전해주다

그 무언가는 곧 나의 정보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신뢰를 받기 위해 먼저 나의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노력을 해보자.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오늘 어땠어?"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괜찮았어"가 아니라 "조금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졌어"라고 대답하는 편이 좋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내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곧 내가 숨기는 게 없다는 얘기다. 상대는 더 많은 정보를 전해주는 쪽에게 믿음이 간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일이다.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은 일관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실제로 포춘지 500대 기업 임원들을 연구한 결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적절히 표현한 사람이 신뢰를 더 얻었다고 한다.

누군가가 작은 실수를 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지 말자. 곧바로 신뢰가 무너진다. 감정에 사로잡힌

경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눈치채야 한다. 이때, 주먹 쥔 손을 펴고, 턱을 풀거나 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혹은 숨쉬기에 집중하는 것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그 사람이 채워 주리라는 기대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뢰를 쌓는 것은 진심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의지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는 부단히 그리고 성실하게 나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한다.



불꽃의 테너, 여름보다 강렬한 무대를 선물하다

밀양구치소

음악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단 몇 초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일렁이게 하고, 흥을 돋우게도 한다. 또 우리를 맞은 계절과 상관없이 싱그러운 내음을 전하기도, 마음에 소복이 눈을 쌓이게도 한다. 그리고 노래를 좋아했던 그 한 시절을 늘 마음 한편에 담아두게 하는 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힘을 얻는다. 음악이 주는 그 힐링의 힘을 직원들에게 전하기 위해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이 밀양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경치 속에 놓인 밀양구치소

밀양은 아름다운 도시다. 호젓한 산세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도시는, 어디에서 봐도 멋진 경치를 끝없이 펼쳐놓는다. 완공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깨끗하고 세련된 건물 외관을 자랑하는 밀양구치소는 이 밀양의 산뜻한 경치와 잘 어울렸다.

다만 안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밀양구치소 직원들은 많이 지쳐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밀양은 덤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을 만한 지역. 지리적 특성으로 문화 체험을 누리기도 힘든 만큼, 직원들에게 더위를 잊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이 밀양구치소를 찾은 것은 그래서였다. 직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청량한' 힐링을 선사하려 한 것. 아주 특별한 선물과 함께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준비한 선물은 바로 최용호 테너의 공연이다. JTBC '팬텀싱어' 시즌 1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그는, 엄청난 성량과 완벽한 무대장악력으로 '불꽃의 테너'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기 테너다. 클래식은 물론 오페라와 뮤지컬까지 넘나들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최용호 테너는, 직원들을 위해 무대를 꾸며줄 수 있는냐는 요청에 흔쾌히 이곳 밀양까지 내려와 주었다.

밀양구치소 김철민 소장과 직원들은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특히, 김철민 소장은 평소 자신이 음악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털어놓으며,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전하였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은 무대가 진행될 강당 안에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았다. 우선 이벤트의 상징과도 같은 현수막을 정성스레 달았고, 밀양구치소 서우창 교사, 김영곤 교도가 흑여 음향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마이크와 앰프를 살폈다. 리허설을 준비하는 최용호 테너도 실전 못지않게 열창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유로움보단 사뭇 비장함까지 느껴졌던 이벤트 준비의 시간. 이젠 직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공연의 막을 올릴 일만 남았다.

모두의 마음을 적신 공연의 1막

공연을 찾는 직원들의 수가 적으면 어쩌나, 잠시 들었던 걱정이 무색했다. 많은 직원이 빠르게 자리를 채워간 것. 공연 흥행에 반짝, 파란불이 켜지자 절로 안도가 놓였다. 시작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직원들의 눈은 반짝였고, 이들의 설레고 행복한 표정에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직원들끼리 대화를 이어가며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그때, 진행을 맡은 윤종용 교위가 인사를 전하며 이벤트 시작을 알렸다. 간단한 퀴즈로 몸을 풀고, 드디어 막을 올린 이벤트. 무대를 책임질 최용호 테너의 소개가 끝나자 강당 안에는 전주만으로 마음에 울림을 주는 노래 '시간을 기대어'의 선율이 천천히 무대에 번지듯 흘렀다.

대기실에서 나와 한 발짝, 한 발짝씩 무대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최용호 테너가 박력 넘치는 성량과 풍부한 감성으로 노래를 빚어냈다. 모든 노랫말이 강당 안을 가득 채웠고, 직원들은 "와아!"하고 환호를 터트렸다.

박수 소리와 함께 뜨거운 환호를 받은 최용호 테너의 얼굴에는 긴장한 낮빛이 별로 비치지 않았다. 가볍게 미소피며 자기소개를 하고 침착하게 인사말을 전하는 그였다. "이처럼 특별한 장소에서, 교정공무원 여러분을 위해 공연하게 돼 영광입니다. 곡이 끝난 뒤에는 방금처럼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채운, 수많은 공연 이력이 말해주듯 베테랑다운 모습이다. 최용호 테너는 곧바로 두 번째 노래를 이어갔다.

자유자재로 음역대를 오가며 'Nessun dorma'를 소화하는 그의 무대에는 카리스마가 넘쳐흘렀다. 그 모습에 직원들은 숨죽인 채 몰입하였다.

최용호 테너는 노래가 끝난 후에도 직원들을 향한 의미 있는 말을 잊지 않았다. "가사에 vincere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탈리아어로 '승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위와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한 것. 직원들의 얼굴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진다.



다채로운 공연의 울림, 이어지다

이러진 곡은 '지금 이 순간'이다. 누구나 클라이맥스의 한 구절을 들어봤을 이 노래는 그야말로 최용호 테너가 낼 수 있는 '성량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곡이었다.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듯한 고음은 여름날 무더위도 달아나버릴 듯 강렬했다.

연이어 펼쳐진 무대들은 그야말로 다채롭고 풍요로웠다. 부드럽게 운율을 넘나들며 'Perhaps love'를 소화해 직원들의 마음을 축축이 적셔주는가 하면, '사랑했지만'으로 모든 이들이 가슴 한편에 담아둔 추억을 펼칠 수 있도록 벽찬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진심을 다한 노래들에 직원들의 몰입도가 점차 높아진 것은 당연지사. '사랑하기 때문에'가 나올 때는 직원들이 흥얼 흥얼 가볍게 따라 부르는가하면, 장엄한 서사가 그려지는 'Melodramma'가 흐를 때는 미소마저 거둔 채 두 손을 꼭 쥐고 노래를 감상하기도 했다.

모두가 공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곡인 'Time to say goodbye'에 이르렀다. "지난 기억의 아픔과 안녕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이 이 노래 가사에 담긴 주제입니다." 곡의 의미를 설명한 최용호 테너는, 화창한 봄날의 별을 무대에 물들이듯 로맨틱한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이대로 모든 공연이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직원들이 떠나 할 것 없이 '앵콜! 앵콜!'을 열창했다. 무르익을 대로 익은 공연의 열기. 무대를 보내기 아쉬운 직원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최용호 테너는 대기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옮겨, 싱긋 미소를 짓더니 '사랑하기 때문에'로 화답했다. IMF 당시 국민들을 위로한 노래는, 최용호 테너의 목소리를 통해 수고하는 직원들을 따듯이 격려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앵콜 요청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절정이다. 최용호 테너는 정해진 시간보다 이미 20분 더 공연을 한 상황이었음에도,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의 대미를 장식, 무대를 끝까지 달아오르게 했다. 이날, 최용호 테너는 노래만으로 직원들을 뮤지컬 무대의 객석으로 살포시 옮겨놓는가 하면,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흘러보냈던 옛 시절의 한 장소로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매 순간 특별한 의미를 남겼던 무대

강당에는 몇 대의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열창했던 최용호 테너의 땀까지 식히지는 못했다. 그만큼 더운 여름, 그 무더위보다 뜨겁게 무대를 소화했던 최용호 테너였다. 매번 노래하기에 앞서 곡의 의미와 정보를 전달해

주는가 하면, 넌센스 퀴즈로 직원들의 긴장도 풀어주며 단 한 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무대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최용호 테너는 입고 온 상의를 11번의 무대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벗지 않고 착용하는 남다른 무대매너도 보여주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관객을 향한 예의라고 믿는다고, 무던히 얘기하는 그였다.

모든 무대에 직원들 역시 예의를 지킨 것은 물론이다. 최용호 테너가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바랐던 대로, 직원들은 무대가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를 보냈으며,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공연의 매 순간을 눈에 담았다. 최용호 테너의 땀이 계속해서 흐르자 급히 선풍기를 갖고 와 무대 위에 올린 것도 직원들이 그에게 전한 '센스 있는 화답' 중 하나였다.

이처럼 테너와 직원들이 서로 뜨거운 마음을 주고받은 이벤트는 무더위조차 스며들지 못했던, 힐링 가득한 무대였다. 공연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할 즈음 직원들은 최용호 테너에게 수고했다는 말, 오늘 공연 참 좋았다는 말들을 하느라 바빴다. 최용호 테너 역시 직원들에게 호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였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래를 담았던 이날 무대의 여운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오래도록 강당에 맴돌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정은 행복을 Happy corrections

밀양구치소

무더위를 잊게 한 힐링의 무대,
그 특별한 이벤트를 감상한 직원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교사 조한새

이번 공연은 제가 익숙하게
들어봤고, 좋아했던 곡들로 채워져서
더 즐거웠어요. 옛 소중한 추억도
생각이 났고요. 테너분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셔서 감명 깊었고,
힐링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교사 이상협

교정공무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쉬운 직업이고, 밀양은 공연을 관람하기
힘든 곳이에요. 이번 공연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 문화 활동에 대한 갈증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한 이벤트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 최상훈

더운 날씨에 밀양까지 오신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테너분의
이번 공연으로 큰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한
느낌이랄까요?



교도 박수홍

마치 밀양골의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근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무더위를
씻기게 한 시원한 무대였어요.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도 김영곤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노래를
다 듣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음향을 점검할
때는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을지
걱정도 했는데 성공적으로 끝나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Choi Yong-ho

테너 최용호

오늘 공연은 두 가지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를 체험하기 힘든 '밀양'이라는
지역에서, '교정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무대를 꾸몄다는 점이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티를 안 냈지만, 사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호응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상대하는 만큼 웃으면서 일만 할 수 있는 일터는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 교정이라는 일을, 교정공무원분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는 교정공무원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최용호 테너는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오페라과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Grandi Voci
국제콩쿠르에서 테너 특별상 및 베르디 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독일
함부르크 Elise Meyer Stiftung에서 우승했으며 이탈리아 로마 Musica
Sacra 국제 콩쿠르에서는 당당히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정도 기자가 촬영한 우현도 교도 가족

부부 사이에 존댓말을 쓰면 존경심도 생기고 사랑이 깊어진다고 한다. 우현도 교도와 아내 김주영 씨가 그렇다. 연애할 때부터 서로 존댓말을 썼다는 이들은, 덕분에인지 몰라도 여전히 사랑 넘치는 금실 좋은 부부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를 똑 닮은 딸 수지 역시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존댓말만 쓴다고 하니, 가족 모두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쉬이 짐작이 간다. 그 따뜻한 마음과 애정이 가득했던 우현도 교도 가족의 특별한 추억 쌓기 현장을 들여다보자.



쿠키클레이, 비누 만들기 체험

달콤하고 향기롭게 빛은 우리 가족 추억

충주구치소 교도 우현도 가족

마음이 가득 담긴 쿠키 만들기

폭염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였다. 우현도 교도와 아내 김주영 씨, 딸 수지가 충주에 위치한 체험 카페에 도착했다. 더운 날씨에 많이 지쳤는지 아빠 품에 속 안겨 잠들던 수지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큰 눈망울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다.

오늘의 가족 이벤트는, 충주구치소에서 근무 중인 우현도 교도가 신청했다. 아내가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진 후부터 수지와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우현도 교도는 '아빠 어디가'를 통해 수지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우리 부부가 손재주가 없어 어떡하죠?”라며 걱정하는 우현도 교도 부부의 말에, 체험 카페 사장님은 첫 번째 체험으로 쿠키클레이를 권했다. 부부는 사장님이 알려주는 대로 넓은 도마 위에 유산지를 깔고 미리 준비된 4가지 맛의 베이킹 반죽을 넓게 폈다. 수지는 우현도 교도 다리에 앉아 노란 반죽을 집더니 이내 탕탕 내려치다가 꺾꺾 눌러보기도 했다. 그리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 그럴듯하게 반죽 모양을 완성했다. 부부가 수지에게 “잘한다”며 칭찬하자 수지는 곧바로 예쁜 몰드로 꽃모양, 하트 모양도 만들어냈다. 부부는 작은 손으로 쿠키를 똑똑 찍어내는 수지가 너무 귀여운지 내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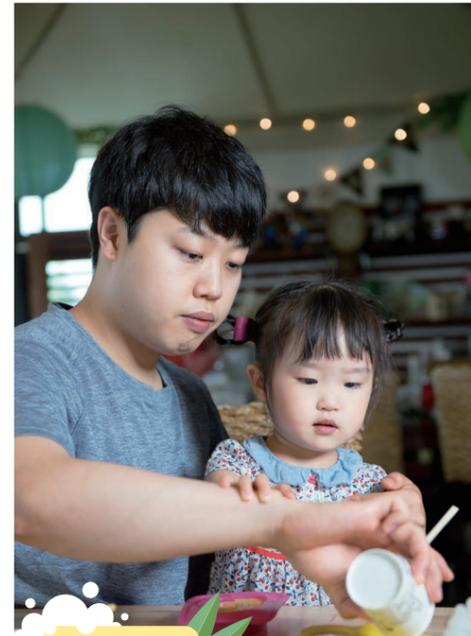
“누구에게 과자 줄 거예요?”라는 필자의 물음에 수지는 잠시의 고민도 없이 대답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리곤 이내 “다 같이 먹을 거예요, 유치원 친구에게도 주고요”라고 말을 덧붙였다. 또다시 웃음이 번지는 부부. 쿠키 반죽이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가족의 웃음소리는 그렇게 함께 커졌다.



집 안 가득 채워질, 추억이라는 향

베이킹 반죽이 예쁜 모양으로 빚어져 오븐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수지는 쿠키가 오븐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오븐에 눈을 떼지 못했다. 지켜보던 김주영 씨가 수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수지는 뽀로로가 좋아? 쿠키 만들기가 좋아?” 그러자 곧바로 수지가 “이거요!”라며 쿠키 반죽을 가리켰다. 부부는 “평소 수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뽀로로인데, 쿠키 만들기가 더 좋다는 걸 보니, 꼭 다시 함께 와야겠네요”라고 웃어 보였다.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가족은 두 번째 체험을 진행했다. “가족을 위해 실용적인 선물을 만들고 싶다”며 비누 만들기를 택한 김주영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향을 맡으며 비누에 들어갈 향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우현도 교도는 아내와 아이가 향을 맡는 동안 곁에서 신중하게 물드를 골랐다.



부부가 서로 답소를 나누는 사이 화이트 비누베이스 등을 녹인 증탕기가 부부 앞에 놓였다. 부부는 사장님의 지도에 따라 각자 원하는 향과 효능을 첨가한 후 수지가 좋아하는 원숭이 캐릭터의 몰드와 꽃 모양 몰드에 비누를 굳혀갔다.

가족도 더하고, 사랑도 더하다

비누를 굳히는 사이, 김주영 씨가 연애 시절 우현도 교도에게 ‘반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다.

“남편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늘 예의 바르고, 한결 같은 사람이었죠. 지금도 가정에서 한없이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예요. 제가 입덧이 심해지자 유연근무를 하면서까지 저를 보살펴줬으니까요. 수지의 등하원은 물론, 목욕도 책임지며 딸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죠.”

김주영 씨는 수지가 배 속에 있을 때 태명을 백설이 라고 지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다. 눈처럼 뽀얗고

깨끗한 예쁜 백설공주 같은 아이로 태어나라고 ‘백설’이란 태명을 지어주었다고. 배 속에 있는 둘째 아이의 태명 역시 흰 백의 의미로 ‘백호’라고 붙였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쿠키도 다 구워졌고, 비누도 다 굳혀졌다. 세 가족은 이제 쿠키를 나눠 먹으며 답소를 나눴다. “사 먹는 과자보다 더 맛있었다”며 작고 예쁜 손으로 과자를 오물오물 입에 넣는 수지의 말에 부부가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쿠키 시식이 끝나자 부부는 체험 활동 소감을 털어놓았다.

“수지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우리 부부가 딸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지가 즐거워하고 함께할 수 있는 체험이어서 더욱 뜻깊었어요. 이 추억을 오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 명에서 네 명으로 사랑을 나눌 가족. 이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빛나는 일상을 빼곡히 수놓길 바라본다.

TIP

로템체험카페

뽀얀 카페는 이제 그만! 로템체험카페는 쿠키클레이, 아로마향 초 만들기 등 핸드메이드 체험부터 전통찻, 키포드 등 액티비티 체험까지, 20가지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단, 외부 강연이 많으므로 방문날짜를 미리 예약하는 것은 필수!

전화번호 043-851-1842

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칠지4길 3

영업시간 평일 14:00~20:00

주말 · 공휴일 11:00~20:00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월간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메일 주소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동료들과 '제주도 푸른 저녁'

〈제주교도소〉

총무과 교사 홍지호, 총무과 교도 우창호, 보안과 교도 박선아

오늘 이벤트를 위해 '어느 멋진 날' 팀이 향한 곳은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은은하게 불어오고, 도로마다 야자수가 펼쳐지는 등 이국적인 풍경을 수놓는, 힐링의 섬 제주도. 이곳 제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우창호 교도의 사연이 바다 건너 '어느 멋진 날' 팀에 전해진 것이다. 제주도 하늘처럼 맑간 웃음을 간직한 제주교도소 삼인방의 특별했던 하루를 만나보자.

끈끈한 동료애가 불러온 행운

제주시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지난 월간 〈교정〉 5월호의 'Theme Talk' 제주교도소 편에서 정성 스톨 소를 안내해주었던 홍지호 교사와 우창호 교도, 박선아 교도다.

필자와 다시 만나게 된 세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전하며 "두 달 만에 또 〈교정〉 촬영을 하게 돼 추억이 쌓여가는 것 같다"며 "교정지 덕분에 동료들도 점점 더 돈독해지고 있다"며 미소를 띠었다.

"사실 연락이 한참 동안 오지 않아, 어느 멋진 날의 기회가 닿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은 놀랐어요. 큰 소리를 질렀죠. '와 됐다'고요." 오늘 이벤트의 주인공인 우창호 교도는 어느 멋진 날의 주인공으로 연락을 받았던 당시를 떠올리며 즐겁게 웃음을 지었다.

우창호 교도는 월간 〈교정〉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떠올렸다고 한다. 지친 일과 속에서 굵은 땀을 흘리던 두 동료의 얼굴을 말이다. 특별한 문화생활로 힐링도 하고, 동료들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어느 멋진 날' 코너에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유다. 우창호 교도는 "총무과에서 가장 많은 일을 처리하며 불편한 내색 한번 없이 묵묵히 일하는 홍지호 교사, 제주교도소의 마스크트로 선배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예쁜 후배 박선아 교도를 위해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영화로 활력 넘치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지호 교사와 박선아 교도를 향한 우창호 교도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어느 멋진 날은 교정이 여러분께 문화편람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동료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연극이 있다면 지금 이레 메일로 신청해주세요요. 신청 : correct015@naver.com / yw1219@korea.kr



반짝이는 설렘이 앞서다

우창호 교도는 함께하는 두 동료들 부러 놀래 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벤트 2~3일 전에 소식을 알렸다. 홍지호 교사는 “우창호 교도가 다른 이벤트에도 많이 응모하는 편”이라며 “그래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고 ‘역시 될 사람은 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벤트 당일은 홍지호 교사의 여름휴가가 끝난 복귀 일자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의 이벤트를 떠올리니 하루 종일 밀린 업무를 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웠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벤트 주인공이 됐다’며 자랑까지 한 후 퇴근했다는 그다.

박선아 교도 역시 이벤트를 나눌 동료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힘들었는데, 퇴근 후에 즐거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며 웃음 지었다.

두세 달에 한번은 함께 영화를 보며 동료애도 쌓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세 사람은,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나 관람 취향도 같다. 액션, 스릴러 등 스케일이 큰 영화는 무조건 영화관 스크린으로 봐야 한다는 나름의 신념을 가진 것도 공통분모다. 함께 보고 싶은 영화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을 선택한 것은 그래서였다. 화려한 액션이 주는 쾌감을 실감나게 느끼고 싶기 때문. 표를 예매하는 세 사람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반짝, 서렸다.

우창호 교도는 다른 교정공무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문화 활동으로 역시 영화를 꼽았다.

“우선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적잖아요. 일과를 마치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함께 영화관을 찾기도 티켓을 쉽게 예매할 수 있고요. 또, 요즘 같은 여름에는 시원한 영화관에서 더위도 잊을 수 있으니 이만한 문화 활동이 없죠.”

“이벤트를 떠올리니 하루 종일 밀린 업무를 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웠어요,,”



빛나는 일상을 새긴 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영화를 관람하기에 앞서 세 사람은 근처에 위치한 명태조림 식당으로 향했다. 세 사람이 찾은 식당은 제주도에서도 유명한 명태조림 맛집. 동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던 우창호 교도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 든든하지만 부담 없는 한 끼인 명태조림을 택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식사가 나오는 동안 서로를 칭찬하며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갔다. 제주교도소 내에서 ‘에스맨’으로 통한다는 우창호 교도는 늘 긍정적인 대답을 달고 산다고, 또 최선을 다해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며 믿음직한 선배, 든든한 후배로 직원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단다.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세 사람은 이어 나온 명태조림을 보고 “와아!”하며 환호했다. 붉은 양념이 잘 배어들고 그 위로 깨가 듬뿍 뿌려진 명태조림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다. 명태조림에 젓가락을 갖다 대는 세 사람의 얼굴에 가득 미소가 번졌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이벤트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쌓아올릴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어느 멋진 날’ 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선아 교도는 “고된 업무와 로테이션 근무로 사실 동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아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창호 교도 역시 “지친 하루 일과 끝에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이벤트를 통해 함께 진짜 행복한 일상을 새긴 것 같다”고 전했다.

고된 업무 속에서도 서로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의지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제주교도소 직원들. 이들이 더욱 끈끈한 동료애를 다지며, 지금처럼 빛나는 일상들을 수없이 이어질 내일들에 차곡차곡 새겨 넣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역시 될 사람은 된다”

교도 우창호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기에 그에 대한 행운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아닐까요?(웃음) 앞으로 교정 생활을 하며 수용자 또한 ‘될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봉사는 풍요롭게, 믿음은 끈끈하게

이웃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 만큼 삶에서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더욱이 그 일을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한다면, 의미는 배가 될 것이다. 여기,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이 있다. 가족 간 신뢰를 쌓고 아이들의 인격 함양에도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통해 특별한 하루를 채워보도록 하자.

01
Donate the clothes

02
Recycling

03
Teach Hangul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습관, 봉사활동

최근 봉사 트렌드는 가족 봉사활동이다. 각종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족 봉사단 모집글이 계속해서 올라올 정도다. 봉사활동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높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형성법과 유지법 등을 배움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성장에도 큰 도움을 받는다.

특히,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청소년 상담 심리 전문가들은 “유아기 시절의 자기중심적 행동이 고쳐지지 않은 청소년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나 일탈과 범죄를 저지른다”며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동적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낮다”며 가족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가족 봉사활동이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 봉사활동들이 있다. 첫 번째 추천 가족 봉사활동은 청소년기 자녀들과 함께하기 좋은 ‘시설 봉사활동’이다.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청소 및 빨래, 목욕 봉사, 담소 나누기, 생필품 또는 현금 기부 등을 진행, 도움을 주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다음으로 어린 자녀와 함께하기 적합한 ‘환경 보호 활동’이 있다. 하천 살리기, 환경 정화 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등을 통해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는 활동이다.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 봉사활동 시작에 앞서, 아이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과 목적,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자. 봉사를 넘어, 환경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 추천 활동은 ‘지식, 재능 나눔 활동’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살려 타인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하는 방법이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공부방, 미용 봉사, 영정사진 촬영 제작, 요리나 제과·제빵 등이 그 예다. 가족의 재능을 활용하여 무료 강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식, 재능 나눔 봉사활동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아이가 자존감을 느끼도록 해주며, 재능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밑바탕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기 자녀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이 봉사활동은, 자녀 터울이 있는 가족에게 추천하는 활동이다. 자연재해 지역 피해 복구, 교통안전 지킴이, 공공기관 업무 보조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 이 평범한 사실을 주지하고, 가족 간 돈독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일상을 장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PLEASE
DO
NOT
DISTURB



모두가 잠든 사이, 당신은 눈 뜨고 있나요?

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갖들게 한다. 한 사람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마무리 짓게 한다. 어쩌면 사람은 잠을 통해서 일상을 나누고, 더하기도 하며 길고 긴 삶을 영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편안히 잠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왜 누군가는 잠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눈 떠 있어야 하는 걸까. 이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소개한다.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불면증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잠이 오지 않으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착각하곤 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다가 새벽 5시에 잠들어 오후 1시에 일어난다면, 이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그냥 늦게 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다.

불면증은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 혹은 너무 일찍 잠을 깨는 경우, 충분히 잤는데 계속 졸린 경우를 말한다.

이를 크게 입면 장애, 수면유지 장애, 조기 각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입면 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증상이다. 수면유지 장애는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잦은 증상, 조기 각성은 일찍 일어난 뒤 다시 잠들기 어려운 증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증상이 하나 이상 있다면 불면증으로 볼 수 있다.

불면증은 질환으로 그치지 않고, 질병으로 이어지기에 꼭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적인 불면증은 고도 불안, 우울증, 고혈압, 당뇨, 사고,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불면증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모든 정신병의 원인 중 30% 정도가 불면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새로운 습관과 다양한 시도로 치료하기

그렇다면 불면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새로운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잠자는 시간보다는 깨어나는 시간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다. 일어난 시간이 되면 잠을 몇 시간을 잤는지 간에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좋다.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예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잠을 잘 수 있는 장소에서 그냥 '가(假)수면' 상태로 휴식을 취하면서 피로를 푸는 것이 좋다. 실제로 잠을 자든 안 자든 어두운 곳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 자체로도 수면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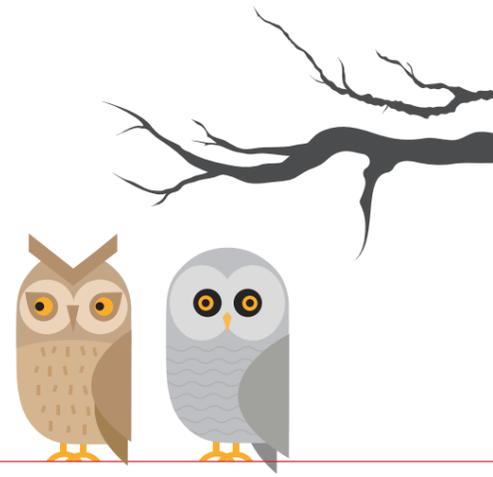
잠자기 1~2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사를 거르면 허기질 수 있고,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반대로 과식하면 속이 쓰리거나 위산 역류가 돼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명상'이다. 잠을 자기 전에 명상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서 장애나 신경 장애로 인해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 효과적이다. 이때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하고, 호흡 운동과 병행하면 더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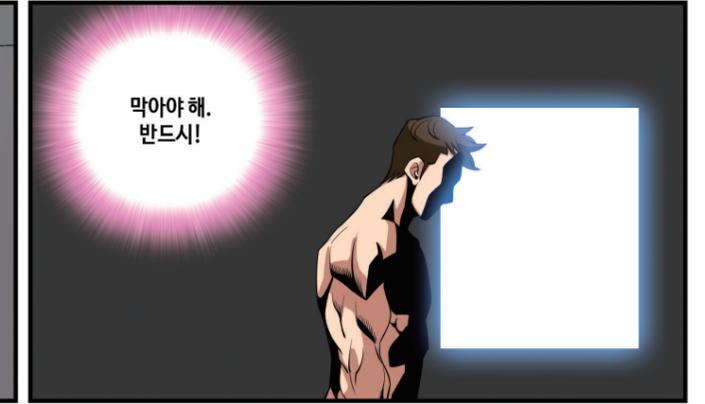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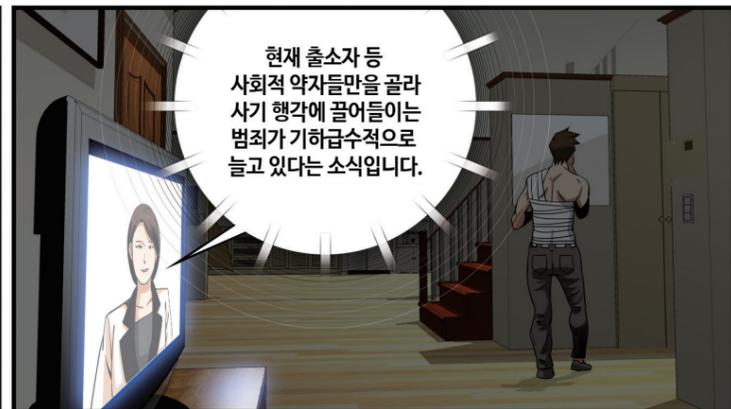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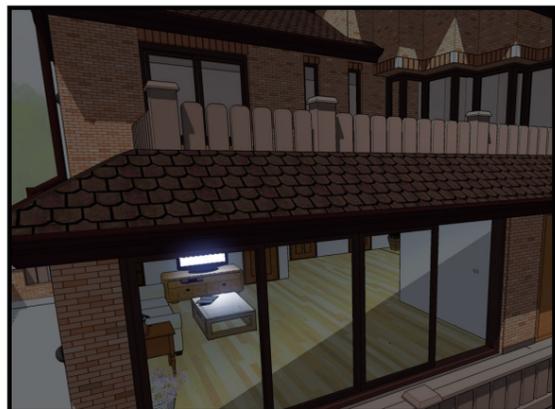
우리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된 허브도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카모마일, 린든 블라썸, 레몬밤, 마조람, 라벤더 등의 허브차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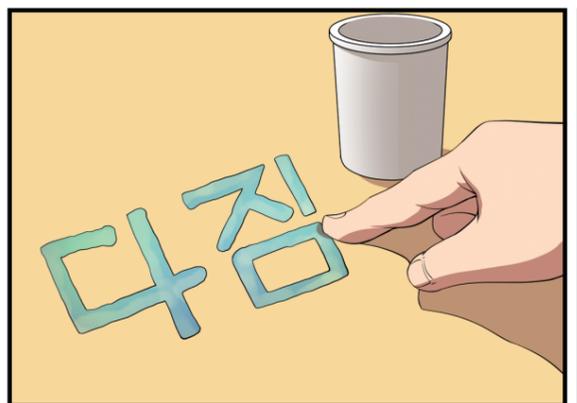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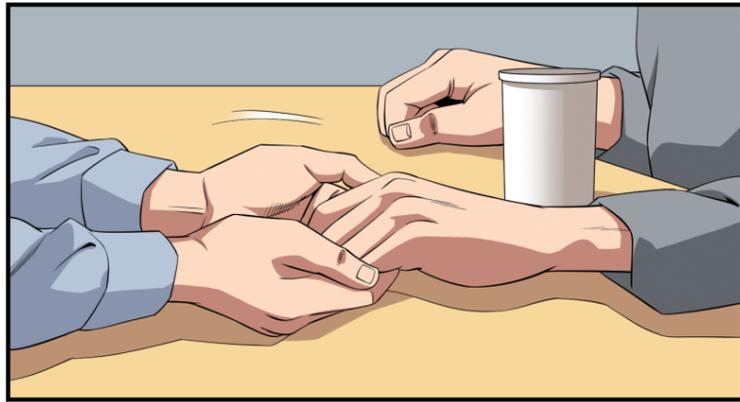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당부할 얘기가 있다.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강한 빛은 뇌를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잠자기 전에 형광등 끄듯이 전자기기도 꺼야 한다.

이처럼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자. 수면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과 다양한 시도들이 우리를 다시 슬며시 잠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판지맨과
힘을 키우는 교정맨





감옥에서 꿈을 현실로 이룬다, 사형수에서 법대 졸업생이 되기까지

케냐의 카미티 감옥에서 18년을 복역했던 피터 오우코. 잘못된 사법 체제로 억울하게 수용 생활을 한 그는, 자신을 희생자로 가뉘 많은 사람을 원망하는 길 대신 감옥에서 자신의 사명을 새기며 공부하는 길을 택한다. 같은 처지의 수용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또 주고 있는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본다.



Peter Ouko
TED 강연 영상

희생자라는 낙인을 거부하다

저는 '만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슨은 28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딸과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지르지 않은 살인 혐의로 구속되고 맙니다. 교수형을 선고받게 되죠. 2명이 채 안 되는 감옥에서 13명의 성인 남성들과 갇혀 지냅니다.

만슨은 감옥에서 숫자로 불렸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법 제도에 분노했죠. 잘못된 사법 체계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그는,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그는 자신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을 희생자라고만 생각해 절망만 한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동료 수감자들을 동원하여 사법 위원회에 편지와 메모를 썼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다

이 무렵 만슨은 영국 출신의 대학생 알렉산더 맥린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대학 동료들은 최첨단 기술로 감옥 도서관을 단장하고, 감옥에 병실을 세워 수용자들이 감옥에서 병으로 수척스럽게 죽음을 맞이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만슨이 런던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죠. 교도소에서 원격 서비스를 통해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2년 후 만슨은 감옥 안에서 런던 대학을 졸업한 첫 번째 학생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니, 그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불의를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수용자를 위해 법적 문서들을 써준 것입니다.

이 일화는 실화입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제가 만슨이기 때문입니다.

꿈으로 달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

저는 지난해 10월 감옥에 온 지 18년 만에 대통령 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수용자들이 감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의'에 닿을 수 없었던 빈민층 역시 도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죄수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감옥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만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명료하고도 확실한 지론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음과 실천이, 바람을 곧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TED 'From death row to law graduate'편 시청방법

www.ted.com에 접속한다 → 오른쪽 위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검색창에 'Peter Ouko'를 입력한다 → 동영상 중 Peter Ouko: 'From death row to law graduate'을 재생한다.

* 동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의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방귀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 백범일지를 읽고 -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깥도 많이 덥지만 여러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정기관 거실은 더욱 지내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얼마 전 백범 김구선생(1876. 7. 11 ~ 1949. 6. 26)의 치열한 삶의 기록을 다룬 백범일지를 읽다 보니,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생께서 신민회 사건(1911)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기록한 옥중의 의·식·주에 관한 부분¹⁾이었습니다.

‘옥중의 고통은 여름, 겨울 두 계절에 더욱 심하다. 여름철에는 감방에서 수인들의 호흡과 땀에서 증기가 피어올라 서로 얼굴을 분간할 수 없다. 가스에 불이 나서 수인들이 질식되면 방안으로 무소대를 들이쏘아 진화하고, 질식된 자는 얼음으로 찜질하여 살리는데, 죽는 자도 여러 번 보았다. 수인들이 가장 많이 죽기는 여름철이다. 왜놈 간수 놈들의 심술은 감방에서 무슨 말소리가 났는데 누가 말을 하였나 물어보아 말한 자가 자백을 앓고 누가 말했다고 고발도 없을 때는 여름철에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겨울철에는 방문을 여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감시의 묘방이다.’

서대문 감옥에 있던 일본 간수들의 고문과 인권탄압 등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수인들이 여름 거실 내 가스로 질식하여 죽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귀로 사람이 질식할 가능성이 있나 싶어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는 ‘대장 안의 기체는 이산화탄소·수소·메탄 가스로 구성되는데 대장 세균의 장내 활동을 통해 발생한다. 대장 내에 생기는 가스는 음식을

1) 백범일지(도진순 주해, 돌베개) 247~254p

自金 叙傳九 白凡逸志

먹을 때 삼킨 수소와 질소 가스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탄 가스와 수소 가스가 산소와 적당비로 혼합되면 폭발성 가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백범일지의 내용 중에는 ‘왜놈의 다다미 3장 반에 해당하는 방안 면적에 수인 10여 명은 보통이고, 어떤 때에는 20여 명을 몰아넣을 때도 종종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좁은 거실에 방문이 닫혀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과밀수용과 여름철 무더위까지 겹친다면, 방귀로 인한 질식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정은 대한민국 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발전이 꼭 훌륭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정이 더욱 발전하려면, 수용 밀도를 낮춘 현대식 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질서가 잘 지켜지는 가운데 내실 있는 사회적 처우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도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후일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 감옥 간수부터 대학교수의 자격으로 사용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주력해야 하겠고, 일반 사회에서도 감옥살이 한 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해야 감옥 설치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전국 교정기관의 직원분들과 수용자들의 건강과 무사고를 기원하며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쫄렸던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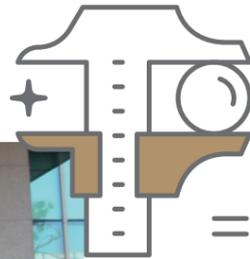
“처음에 성명부터 신문을 시작하던 놈이 불을 밝히고 밤을 새우는 것과 그놈들이 온힘을 다해 사무에 충실한 것을 생각할 때에 자괴심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평소에 무슨 일이든지 성실껏 보거나 하는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남에게 먹히지 않게 구원하겠다는 내가 남의 나라를 한꺼번에 삼키고 되씹는 저 왜구와 같이 밤을 새워 일한 적이 몇 번이었던가? 스스로 물어보니, 온몸이 바늘방석에 누운 듯이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내가 과연 망국노의 근성이 있지 않는가 하여 부끄러운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 찼다.”²⁾



2) 백범일지(도진순 주해, 돌베개) 221p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참관 참신한 아이디어로 설계하는 내일의 교도소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주최한 '교정시설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전국 70여 개 대학에서 총 467명의 대학생(264팀으로 구성)이 참가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교정본부는 이에 힘입어 참관을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참관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발 앞선 교정을 그리다

지난 7월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는 '교정시설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던 대학생들로 북적였다. 교정시설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들이 관련 정보를 받고, 이해도를 높여 교정시설 설계에 보탬이 되도록 신청자에 한해 참관 행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1층에 마련된 복도 응접실에 모여 대강당으로 향한 60명의 학생들은 참관 행사에 앞서 사전 지식을 습득했다. 학생들은 교정본부에서 준비한, '미국 교정 시설'에 대한 영상을 관람한 후 교정기획과 김종원 교감으로부터 교정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내용을 꼼꼼히 필기하는가하면, 스마트폰으로 그림과 자료 등을 촬영하며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었다.

본격적인 참관에 앞서 김종원 교감은 "현재 교정시설은 과밀 수용과 함께 수용자 대비 부족한 교정공무원의 수가 문제시 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법을 인지하며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 및 발전, 보안장치에 대한 의미, 교도관의 영역 등 다양한 부분을 고민하며 참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학생들은 관사부터 접견 장소, 검색대, 보안과 코어, 수용거실 등을 차례차례 둘러보며 현장 교정공무원들로부터 현재 교정시설이 직면한 문제점 등을 생생히 전해 들었다. 학생들을 안내했던 보안과 방광일 교위는 참관이 끝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어 매우 기뻐다"며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로 교정시설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생들도 "오늘 참관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며 "오늘 참관을 계기로 교정과 관련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Mini Interview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3학년 김혜영, 장유정, 황수빈 학생

교정시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고 직접적으로 교정시설을 볼 기회가 없어서 아이디어를 내기가 사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이번 참관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분들의 생활공간이 궁금했는데 직접 보게 되어 좋았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시는 교도관분들을 보니, 최선을 다해 공모전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 4학년 김예원

교정시설 공모전의 주제가 다른 공모전과는 달리 특수성이 있잖아요. 흔하지 않은 주제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관을 하고 보니, 교정의 가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느꼈던 부분을 꼼꼼히 다듬어 공모전에 좋은 출품작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수용자 인권에 취약한 현 징벌제도 개선을 위한 ICP(Independent ChairPerson)제도의 비교 연구(개인훈련)



I. 국외훈련 개요

1. 훈련의 필요성

새 정부 들어, 2017년 5월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 개선 필요성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청와대가 요구했다¹⁾.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에 의하면, 특히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진정 건수는 2만 6,615건으로 전체 30.2%²⁾에 달한다. 교도소 내의 인권 침해 방지 및 인권 향상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훈련의 목적

교정기관이라는 공간은 항상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곳이다. 구금이라는 행위 자체로 천부인권의 침해는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법이라는 제도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기관과 교정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나 규칙 중에,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징벌 관련 제도이다. 따라서 조사부터 징벌의 결정과 그 집행, 그리고 사후 구제 절차까지 상당한 관심이 요구된다. 수십 년간 징벌 관련 규정은 수용자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며, 시설 내 조사의 도입과 같이 계속 정비되어 왔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징벌위원회 제도이다. 하지만 징벌 절차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수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³⁾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징벌 절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 기관의 징벌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 징벌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징벌 제도 연구를 통하여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부여에 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다.

1) 대통령 지시사항(2017. 5. 25)

2) "교도소·구치소 인권침해 막는다...법무부, 개선책 마련", 연합뉴스(2017. 5. 26)

3)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징벌제도 시정 및 개선권고(2003. 6. 23)

II. 우리 징벌 제도의 문제점

우리의 모든 징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둔다. 그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년 시정 및 개선권고 등을 참조하여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1. 규문주의(糾問主義)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

현행 교도소 등의 운영 책임은 소장에게 있지만, 수용자의 생활 전반, 특히 실질적인 규율의 유지와 관리는 보안과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의 규율위반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적발하는 것도 보안과장의 책임이고 그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업무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이지만, 보안과장 소속 하에 편제된 고충처리팀(조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사 후 징벌의 결정은 대부분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조사(수사) 및 그 판단의 주체가 교도관으로 통칭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문주의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외부위원의 실질적 권한 미약

징벌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3명)의 징벌위원회 참가를 의무화하였다⁵⁾. 하지만 외부위원이 징벌위원회가 열리는 하루 동안에 조사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조사 대상자인 수용자와 충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에 맞는 징벌을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외부위원들이 징벌 결정에 있어 과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4) "규문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관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규문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2005. 2. 10. 제6판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37쪽) 쉽게 설명하여 규문주의는 기소권과 심판권을 한 조직이 모두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5) 2008. 12. 22. 개정 시행되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6) 2008. 12. 22. 개정 시행되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 제정·개정이유로 "(1)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규율위반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징벌이 금지 위주로 집행되어 왔고, 그 종류도 5종에 불과하여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징벌의 종류에 근로봉사,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 9종을 추가함으로써 규율위반 등의 태양에 따라 다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적시하였음.

7) "사망자 발생 부산교도소, 금치처분 가장 많아", 매일일보(2016. 9. 27), 이상래 기자

8) 국제연합총회에서 1988년 12월 9일 투표없이 채택된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제30조 제2항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캐나다의 법률(Correction and Conditional Release Act), 규정(Correction and Conditional Release Regulation)과 지침(Commissioner's Directives 580)을 정리하였다.

3. 실질적 징벌 처분의 다변화 부족

법무부는 2008년 금지 위주의 징벌 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벌의 종류를 5가지에서 14가지로 다양화⁶⁾했지만, 교정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2016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벌 종류별로는 독방에 금지되는 경우가 1만 5,104건으로 대부분(89%)이었고, 경고처분이나 도서열람제한, 작업장려금 삭감은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⁷⁾. 형식적으로는 징벌의 종류가 늘어났지만, 수용자의 규율 위반의 정도에 알맞은 실질적인 징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4. 징벌 의결 및 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 불비⁸⁾

현행의 법제 하에서는 징벌의결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불복 방법이 없는 관계로 청원, 행정쟁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헌법소송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불복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자가 징벌 조치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 소란, 자해 등의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III. 캐나다의 교도소 재판

1. 캐나다 교도소 재판(institutional court)⁹⁾의 정의

캐나다 교도소에서는 규율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의 징벌위원회에 해당하는 교도소 재판(institutional court 또는 disciplinary court)으로 그 행위의 규율 위반을 결정한다. 그 재판의 주재자를 ICP(Independent ChairPerson,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의 역할)라고 부르며, 교도소 재판의 또 다른 이름이 ICP System(제도)이다.

2. 캐나다 교도소 재판의 종류

규율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징계 재판(major court)과 경징계 청문(minor hearing)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중간 이상의 심각한 사안은 중징계 재판에서 ICP의 주재하에 일반 형사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수용자의 규율 위반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3. 경징계 청문(Minor Hearing)

중징계 재판인지 아니면 경징계 청문인지는 규율 위반 사항에 따라 확실적으로 구분된 것은 아니다. 직원이 작성한 관찰 보고서(Observation Report)나 수용자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분된다. 경징계 청문은 보통 주 1회 시행되고 있지만, 각 교도소의 상황에 따라 그 실정은 유연한 편이다. 경징계 청문과 중징계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ICP이나, 간부 직원(Correctional Manager)이나에 달려있다. 따라서 경징계 청문의 경우 간부 직원 중에서 청문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직원이 규율 위반 의심 수용자를 청문을 담당하는 근무자의 사무실로 호출되어 혐의 여부를 판단과 제재 결정을 한다.

경징계 청문의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수용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warning) 정도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fine)¹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벌금 처분 역시도 일정 기간 유예 처분을 내린다. 경징계 청문의 경험이 있는 수용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교도소 측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 알아볼 중징계 재판의 경우는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IV. 중징계 재판(Major/Serious Court)

중징계 재판의 전체적인 과정은 우리의 형사재판과 매우 비슷하다. 보통 주 1회 열리며, 중간 보안 등급 이하¹¹⁾의 교도소에서 사건이 없어 월 1회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징계 재판을 소개하겠다.

1. 징계 위반

수용자가 직원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또는 반입 금지물품의 소지, 적시된 위반 사항을 시도하거나 또는 규율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을 돕는 행위 등 법률에 적시된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하면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모두 21가지의 위반 사항이 있으며 대체로 우리의 그것과 유사하다.

2. 비공식 해결(Informal Resolution)

캐나다 징벌 제도 중 특이한 것이 비공식 해결로, 직원은 수용자가 징계 절차에 회부되기 전에 반드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비공식 해결’은 수용자를 징벌 절차에 회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절차의 진행을 위해 수용자와 직원 또는 관련된 수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만 있으면 비공식 해결의 시도는 재판 과정에서도 가능하다. 비공식적으로 해결되면 수용자는 더 이상 징벌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캐나다 연방교정청이 비공식적 해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자는 법률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

3. 징계 절차의 시작

‘비공식 해결’의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직원은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서면으로 수용자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수용자는 ‘자신의 사건을 알 권리’와 ‘징계 절차 방어를 위해 준비할 권리’를 가진다. 심각한 보안상 위반, 폭력,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 계속된 규율 위반과 같은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중징계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만약 수용자가 중징계 재판에 회부되면, 수용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자신을 변호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수용자는 수용자 법률 서비스(국선변호인과 비슷한 제도)나 사선 변호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4. 재판 과정

재판 과정은 일반 형사재판과 거의 똑같다. 검사의 구형에 해당하는 과정만이 빠져 있다.

재판의 주재자는 ICP이다. ICP는 캐나다 연방교정청과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 간부 직원은 캐나다 연방교정청을 대표하여 중징계 재판의 보조자(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수용자가 유죄로 밝혀지면, 간부직원은 ICP가 선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이 될 서류 등을 ICP에게 줄 것이다. 따라서 간부 직원은 일반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보다 ICP를 보조하는 역할이 더욱 강하다. 재판 서기(Court Clerk)도 있다. 재판서기는 ICP와 중징계 재판 보조자를 돕고, 재판 일정을 관리하며,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만약 수용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ICP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요약하고 수용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가 생각하는 정당한 제재에 대하여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후 ICP는 수용자가 받을 제재가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다.

수용자가 ‘혐의를 부정’하거나 답하지 않으면, 재판은 속행되어, 증거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다.

5. 처벌

수용자의 징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ICP는 수용자에게 그 위반 사항에 대하여 처벌이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처벌이나 제재는 ① 경고 또는 질책 ② 특권¹²⁾의 상실 ③ 배상 명령(수용자가 일으킨 손상에 대한 지불) ④ 벌금 ⑤ 작업 부과¹³⁾

⑥ 최대 30일까지의 격리(오직 중징계에서만) 중 1개 이상을 포함할 것이다.

6. 징계 재판의 불복

수용자가 징계 재판에서 유죄를 받거나 불공평하게 선고를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수용자는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경징계 청문은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고충처리 과정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중징계 재판의 ICP가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따라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여야 한다¹⁴⁾.

(1) 변호인 없이 즉시 유죄 인정된 경우

수용자가 재판 첫날에 변호인 선임도 없이 바로 유죄를 인정된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제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떤 불복권도 가질 수 없다.

(2)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된 경우

변호인을 둔 채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를 인정한 후, 재판의 결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수용자는 ICP가 충분히 자신의 재판에 대한 정보들을 보고 유죄 인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복을 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담당할 ICP에게 그들의 결론과 사건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ICP의 재검토 결정 후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3)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을 가진 수용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선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30일 이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ICP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ICP의 결정에 대하여 외부의 재판정에서 사법적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적 검토를 요청하였다면, 그 혐의는 외부의 재판정 판사 앞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 연방 정부는 교도소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을 지정하고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 그런 후에 주(州) 정부 판사가 그 사건을 주재할 것이다.

10) 캐나다 징벌 처분 중 벌금이 있는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벌금이나 배상명령 등은 500달러까지 가능하지만, 수용자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11) 캐나다는 3개의 보안등급(최고, 중간, 최소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참관했던 Collins Bay나 Millhaven 교도소와 같은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는 사건이 많아 주 1회씩 교도소 재판이 열렸다.

12) 전화, 서신수수, 매일 운동 등을 특권이라 한다.

13) 캐나다는 우리의 징역형이 없고, 모두 금고형의 성격이기 때문에 ‘작업 부과’가 일종의 징벌이 될 수 있다.

14) 아래에서 볼 불복 과정은 온타리오 지방교정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캐나다는 주(州)별로 법률 체계가 조금 달라서 다른 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가끔 발생하는데, 이 사건들은 온타리오주에서는 오타와(Ottawa)에 있는 법정에서 열린다.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교도소 측은 가능하면 그런 경우를 피하고 싶어 한다.

7. 중징계 재판의 특별한 구성원

(1) ICP(Independent ChairPerson)

ICP는 우리의 형사 재판에서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온타리오 교정청의 경우에는 총 4명의 ICP가 있었다. 그들은 총 7개의 교도소에 할당되어 중징계 재판이 있을 때 참석하여 재판을 주재하였다.

ICP가 공식일 때, 캐나다 연방 교정청 홈페이지에 2주간 채용 공고를 올린다. ICP의 자격조건을 갖추려면 변호사로서 최근 3년간 형사법정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석이 생긴 곳의 교도소장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정본부로부터 받은 평가 기준서를 이용하여 지원자의 자격 조건을 평가하고 그들을 면접한다. 이후 위원회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및 그들의 평가서와 함께 자격이 있는 지원자 목록을 관련 서류와 함께 공공안전 및 비상대책부(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¹⁵⁾ 장관에게 보낸다. 장관은 최종적으로 3년 또는 5년의 재임 기간을 가질 ICP를 지명할 것이다. 위원회를 거쳐 장관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캐나다 연방 교정청과 독립된 ICP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일선의 교도소 재판 진행 과정에서 ICP는 교도관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만 재판을 진행하였다.

(2) 변호인

중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수용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은 로스쿨 학생과 일반 변호사가 있다. 온타리오 교정청의 로스쿨 학생은 퀸즈 대학(Queen's University)의 재학생으로 총 18명이 교도소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에 있는, 경험 많은 감독 변호인 1명과 로스쿨 학생 5~6명이 한 팀이 되어 1명의 수용자를 변호한다.

로스쿨 재학생은 일종의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졸업 후 받아야 할 실무수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징계 재판에 참가하는 수용자는 로스쿨 학생과 국선변호인 중 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장에서 참여하며 지켜본 결과,

수용자들은 로스쿨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하였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욱 잘 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V. 결론(훈련 내용 적용 방안)

1. 문제점의 해결방안

우리 징벌 제도의 구조적 특징인 규문주의적인 징벌 절차의 해결을 위하여 외부위원의 참가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그 제도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외부위원의 실질적인 권한 없이 단순한 거수기 역할만을 일부 수행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캐나다의 중징계 재판처럼 ICP가 처음부터 사건의 내용을 인지하고,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사건을 좀 더 구체화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한쪽(교도소 측)의 의견만으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징벌 제재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캐나다
1. 경고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2. 특권의 상실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1) (최소한 1시간)수용자 운동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금지	(2) 텔레비전 시청과 게임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3) 취미 수공예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4) 음악과 악기 연주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	(5) 다른 수용자와 어울리는 기회
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3. 배상 명령(수용자가 일으킨 손상에 대한 지불)
8. 30일 이내의 작업 금지	4. 벌금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5. 작업의 부과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6. 최대 30일까지의 격리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금지	
14. 30일 이내의 금지(禁置)	

양 국가의 징벌 종류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규정된 징벌의 종류는 우리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징벌은 금치가 대부분이고, 그것이 문제점으로

인권위원회 등에서 수정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캐나다 교도소에서 중징계 재판에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 중징계 재판의 선고로 내려지는 징벌은 주로 벌금과 격리 처분이었다. 그렇지만 격리보다는 벌금으로 내려지는 징벌이 훨씬 많았고, 그마저도 벌금의 집행유예(예를 들어, 10달러 벌금에 60일 징벌 유예 처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격리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수용자가 자신의 규율 위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규율 위반 사실이 증거로 명확한 경우로, 오랜 시간 재판¹⁶⁾에서 논의된 후에 ICP가 선고를 내린다. 캐나다 역시도 많은 징벌 처분을 활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하지만 본인은 의문이 들었다. 규율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ICP가 선고하는 날에 징벌을 결정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였다. ICP와 중징계 재판에 참여하는 구성원(교도관과 변호인)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비슷한 답변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기회'였다. 다시 말하여 중징계 재판은 수용자에게 더 강하고 힘든 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앞으로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 종류의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징벌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역시도 다양한 징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처벌인 금지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 교도관들이 말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금지 외에 다른 징벌을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정 제도에서는 징벌 집행에 있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불복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청원, 행정쟁송, 헌법소송, 인권위 진정 등은 즉각적이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다. 하지만 캐나다 교정 현장 속에서는 경징계 청문뿐만 아니라 중징계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 방법이 있다. 특히 중징계 재판은 오랜 시간 재판을 진행하며 높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재판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를 인정하고, 수용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2. 새로운 정책 제안(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의 대안)

올해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지 7년째이다. 본인은 6개월의 실무수습¹⁷⁾을 받아야 하는 변호사들을 교정 체계 내에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캐나다와 같은 징계 재판을 도입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변호사들을 징계 재판의 변호인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캐나다와 같은 징계 재판을 당장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징벌위원회 제도 아래에서도 6개월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징벌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들의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실무수습 변호사들을 보조자로 활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실무수습이 필요한 변호사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니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부여

캐나다의 징계 재판은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구속 외에 또 다른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하여 긴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캐나다 연방 교정청 소속의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근무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징벌을 집행해야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부여된 재판 뒤에 따르는 징벌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징벌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캐나다 교도관들은 말한다. 다시 말해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로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단단히 마련되었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공권력 주체로서의 공무원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용자들 역시 엄격한 징벌 집행에 대하여 많은 부분 이해하고 있었다. 어떤 처벌을 내리느냐가 아니라 작은 처벌일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리는 처벌이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처벌 수위의 상승이라는 결과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까지의 과정의 측면도 그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 중요하다. 앞으로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징벌 정책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본인의 보고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5) 우리 교정본부는 법무부에 속해 있듯이, 캐나다 연방 교정청은 공공안전 및 비상대책부에 소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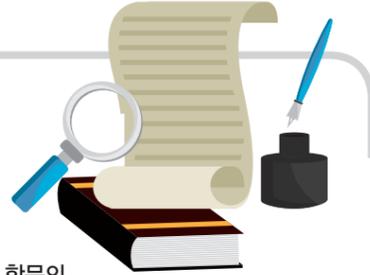
16) 보통 수용자가 규율 위반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의 경우에는, 첫 재판에서 마지막 선고까지 짧아도 1개월은 걸린다. 만약 쟁점이 많고, 증거 조사 철자가 길어진다면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17)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입제한)

교정학

지상강좌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교정학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1. 다음은 수형자 등 호송규정에 대한 규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시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에 의해서만 행한다.
- ② 송치 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 ③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피호송자가 열차·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한 곳의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업무를 처리한다.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교정시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동규정 제2조).

정답 ①

2. 현행 교도관 직무규칙 상 옳은 것은?

- ① 사회복지업무 교도관은 신입수형자와 수시로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 아래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수시로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정문근무자는 수용자의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그 다음 날 일과시작 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① 사회복지업무 교도관은 신입수형자와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 수시로 교화상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수시로 교화상담해야 하는 대상은 수형자 중 환자, 계호상 독거(獨居)수용자 및 징벌자이다.

③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 아래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매월 2회 이상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문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시간부터 기상시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정답 ②

3.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현행법령과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마약반응검사가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소변채취의 목적 및 검사방법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소장은 마약류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습적으로 교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엄중관리대상자들에 대한 계구사용행위, 동행계호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4. 다음 중 현행법령상 관심대상 수용자의 지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들 삼키는 수용자
- ②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 ③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 ④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이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10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관심대상수용자 : 지정대상(동법시행규칙 제210조)

- ㉠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 ㉡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들 삼키는 수용자
- ㉣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
- ㉤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이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 ㉥ 상습적으로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
- ㉦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 ㉧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 ㉨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 ㉪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 ㉫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 ㉬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정답 ④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8

August 2018 Vol. 507

법무부 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7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운영 및 주요 법무정책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스마트관제센터, 원격의료센터 등을 참관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교정본부장, 교정민원콜센터 정책현장 방문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7월 19일 교정민원콜센터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였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교정민원 전화상담 업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교정민원콜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교정민원콜센터 직원을 격려했다.

상반기 '행복한 직장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지난 7월 11일 상반기 '행복한 직장 만들기' 우수기관 5개소가 선정되었다. 창의성, 효과성, 다양성 등 5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서울구치소, 전주교도소, 충주구치소, 진주교도소, 안양교도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기관에는 우수기관 인증패와 함께 포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신규임용 교감(변호사) 간담회 개최

지난 7월 16일 신규 임용된 6급 경력경쟁 채용자 7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7월 20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임용된 교감을 대상으로 교정본부 업무 내용 및 교정관련 주요 소송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소송 업무 담당자로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 공포·시행

지난 7월 13일 「교도관 복제규칙」 전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번 전부개정령은 ① 제명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변경 ② 신형 근무복 제식 반영 및 기능성 티셔츠, 카디건, 점퍼내피 등 신설 제식 반영 ③ 수형자 교정교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이나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8년도 상반기 하트세이버 시상식 개최

지난 7월 23일 교정본부장 집무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하트세이버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수용자를 구조한 유공으로 수원구치소 교도 안태진 등 2명에게는 법무부장관 표창 및 하트세이버 인증서가 수여되었으며 소정의 격려금이 지급되었다.

「마음나래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이 전국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정본부 심리치료과가 교정공무원의 행복한 삶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마음나래」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은 외부 심리상담사와 피지컬 케어 전문가가 교정기관을 방문, 개인 심리상담 및 피지컬 케어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서울남부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17개 기관 88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정공무원 전문상담 공개사례 발표회 개최

지난 7월 27일 법무연수원에서 교정공무원 전문상담 공개사례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전문상담인력 양성과정 교육 대상자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교사 이제희 등 2명이 실제 상담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상담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지도 및 참관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상담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점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광철

어린이 대상 나눔 활동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7월 17일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아 돌보미 놀아주기, 인아주기 등의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나눔 활동을 통해 작은 손길에 언제 어느 때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서울구치소 / 교도 변무관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식 행사 실시

서울구치소는 6월 30일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식 행사를 소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용자들이 직접 가족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실시되었다. 한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은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의왕덕성초등학교 방문 진로체험 특강 실시

안양교도소는 7월 5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덕성초등학교에서 준법교실 및 교도관 진로체험 특강을 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특강은 안양교도소의 역사, 교도관의 업무 소개, 준법교육 등 교정의 기능 및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KBS 국악관 현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관람 실시

수원구치소는 6월 27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KBS 국악관 현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관람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KBS 한국방송 국악관현악단(단장

이정호)의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수용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끌어주는 것이 취지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7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오수 차관은 교정스마트관제 센터, 원격의료 센터, 수용거실 등 구내·외를 순시하며 교정시설 운영 및 재난안전실태 등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인천구치소 / 교사 강호철

'치유의 숲 현장학습' 실시

인천구치소는 6월 14일 직원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천대공원에서 진행되는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직원들은 산림치유 지도사의 지도에 따라 숲길을 걷고 건강체조, 아로마 요법, 풍류, 나무명상 등 레크리에이션이 가미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오정몽

교정협의회 열음 생수 기증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는 7월 11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열음 생수 2만 개를 기증하고 있다. 열음 생수는 수용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7월 17일 관내 송산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보라미 준법교실을 운영하였다.

'법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보라미 준법교실은 학생들이 도덕, 윤리, 법의 개념에 대해 고민해보고, '법을 지키으로써 이익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6월 27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의정부시 소재 영화관에서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인권보호에 매진한 소속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직원들에게는 햄버거, 팝콘 등의 간식도 지급되었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여주교도소 - 이레복지선교회 업무협약 체결

여주교도소는 7월 17일 이레복지선교회와 출소자 및 출소 예정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와 요양이 필요한 무연고자는 물론, 건강 악화 등으로 긴급 출소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소 시 갈 곳 없는 수용자들에게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외부강사 초빙 심폐소생술(CPR) 교육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7월 2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인공호흡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영월교도소

NEWS

춘천교도소 / 교사 김민구

음주운전 예방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춘천교도소는 6월 25일 외부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 예방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탁금지법 금지 사례와 음주운전 예방 안내문이 직원들에게 배포되었다. 또한 캠페인은 구호 등을 제창함으로써 올바른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원주교도소는 7월 19일 횡성 청일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TV에서 보던 교정 장비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학생들은 전자경비시스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상수

전출 직원 송별식 및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7월 30일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 직원 6명을 위해 송별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 직원과 함께한 송별식에서는 전출직원들이 정든 공간을 떠나는 소회를 밝히고, 남은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퇴근 후에는 조출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떠나는 직원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었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기증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는 7월 9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생수 3만 7,200병을 기증하였다. 기증받은 생수는 대구교도소 취사장에서 열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되며, 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사랑의 헌혈 실시

부산구치소는 7월 1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 행사를 실시하였다.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투병

강릉교도소 / 교감 김이수

2018년 비전스케치과정 교육 실시

강릉교도소는 7월 3일 예술 체험활동을 통한 조직 내부 소통 및 공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비전스케치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장인 정신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문학 특강 후에는 도예가 임성빈 교수의 지도로 '각자의 소망이 담긴 도자기 만들기 행사'도 마련되었다.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작은 나눔 음악회 개최

영월교도소는 6월 15일 소 대강당에서 김동건 아나운서를 초청, 자치대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보리밭', '고향생각' 등의 가곡을 공연하였다. 이날 민현기 소장은 앞으로 "수용자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용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정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생활을 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28여 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였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단체헌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규

헌혈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25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협조하여 직원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헌혈은 혈액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경북북부제1교도소 변상준 교도는 총 111회의 헌혈을 하여 지난 2017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공동운 교사는 총 99회 헌혈로 〈명예의 전당〉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빈

신속시설 기관 설명회 실시

창원교도소에서는 7월 24일 시설 이전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계용역업체인 ㈜선진엔지니어링 및 법무부, 교정본부, 창원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PQ작품 설명, 참관, 협의 등이 진행되었다. PQ 작품 설명 직후 관계자들은 현재 일선에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정원기

안청중학교 전문직업인 초청강연 특강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7월 11일 안청중학교에서 열린 전문 직업인 초청 강연에 참가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강연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마련되었다. 강사로 나선 윤우리 교사와 김명원 교도는 현재 평택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교육, 캘리그라피 등의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을 소개했다.

소망교도소 / 배현승

안산시립 합창단 수용자 문화공연 실시

소망교도소는 7월 17일 안산시립 합창단을 초청하여 수용자 문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은 고전부터 대중음악까지 구성되어 수용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합창단은 공연을 관람한 많은 수용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설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낙동중학교에 장학금 전달

부산교도소는 7월 17일 부산시 강서구 소재 낙동중학교를 방문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교도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낙동중학교에 매 분기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성매매 예방 및 양성 평등교육 실시

포항교도소는 7월 12일 직장 내 성매매 예방 및 양성 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김경미 에스테스 힐링상담센터장이 진행한 이날 강의는, 군산 유흥업소 화재 사건 등 사회적 이슈부터 랜덤채팅 앱을 주요 사례로 제시돼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선유여행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개최

진주교도소는 7월 12일 소 대강당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선유여행과 함께 하는 행복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선유여행’(진주교도소 음악동호회 명칭) 회원 15명과 외부 음악인 및 가수들의 합동공연이 펼쳐졌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2018년 하반기 직업훈련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7월 4일부터 3일간 소 내 대강당에서 신입 직업훈련생 35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직업훈련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직업훈련은 총 11개 직종으로 단기 실무(3개월), 기능사 자격 취득(6개월, 1년), 기술 숙련 과정(1년)으로 구분·운영되며,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양승명

사랑의 헌혈 실시

안동교도소는 7월 25일 안동교도소 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하절기를 맞아 개인과 단체의 헌혈이 줄어드는 시기에 혈액수급 안전화에 기여하고 숭고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직원 17명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헌

2018년 비전스케치과정 교육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7월 5일 한국생산성분부 주관으로 ‘2018년 비전스케치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인 정신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특강을 시작으로 교육에 참여한 20명의 직원들이 실제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연

직원화합 체육행사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7월 12일 소 내 대운동장에서 직원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9인제 배구 경기의 결승전을 비롯, 줄다리기, 장애물 이어달리기 등 단체 경기를 진행하였다. 체육대회 후에는 직원식당에서 다과회 등을 통해 그동안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정담게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윤성

‘냉면 Day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7월 10일 창녕 주민교회 정석 중 목사 등 35명의 후원으로 약 500여 명의 수용자들에게 시원한 냉면을 제공하는 냉면 Day 행사를 실시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012년 6월 교도소 중 최초로 수용자를 위한 ‘냉면 Day 행사’를 실시,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이지수

희망 나눔 취업 박람회 참석

울산구치소는 7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주관으로 울산 중화체육관에서 개최된 희망 나눔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올해로 4회째인 박람회는 구직 희망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정창현 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취업 박람회를 통해 구직 희망자들이 근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전문 직업인과의 대화 실시

경주교도소 보안과 김선균 교위가 7월 17일 선덕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문 직업인과의 대화’에 강사로 초빙되었다. 김선균 교위는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교도관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 선택 능력과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사랑의 장학금 전달

통영구치소 통영사랑나눔회는 7월 3일 관내에 소재한 총렬여자중학교를 방문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바른 생활을 하며, 우수한 학업 성적을 낸 학생들에게 총 2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 받은 3학년 학생은 “훌륭한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철

교정시설 설계 공모전 참가 학생 시설 참관

밀양구치소는 7월 16일 교정시설 설계 공모전 참가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공모전 참가 신청자들에게 교정시설을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교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정시설 내 수용동 등을 둘러보았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옥

보라미 봉사활동 실시

상주교도소는 7월 12일 상주시 사벌면에 위치한 희망재활원에서 보라미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보라미 봉사활동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7월 가색방 신청자 및 형기 종료 예정자로서 이날 재활원 주변 환경미화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 씨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형석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7월 11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요 개정사항, 침해·유출 대응 방안,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필수 이행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업무용 PC 및 모바일기기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교육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감 하봉문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전교도소는 6월 26일 제2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송가네 식품 등 16개 기업체와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구직을 희망하는 45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8명과 채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청주교도소 / 교사 김재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흥덕위원회 참관 실시

청주교도소는 7월 12일 봉사단체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흥덕위원회를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흥덕위원회가 봉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참관을 마련한 것으로, 교정행정에 대해 홍보하고,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천안교도소 / 교사 이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천안교도소는 6월 28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성림산업, 이일코리아



대전교도소

2018. AUGUST

등 7개의 업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수용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접·채용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채용이 결정된 수용자는 출소 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7월 9일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은 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교정 공무원의 행복한 삶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심리상담사 2명, 피지컬 케어 전문가 2명 및 마음나래 프로그램 매니저 1명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검진, 피지컬 케어를 하였다.

공주교도소 / 교위 김종욱

공주교도소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업무협약 체결

공주교도소는 7월 9일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와 수용자 건강증진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와 함께 수용자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구내 참관을 실시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도주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충주구치소는 6월 28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에서 재판 중 수용자의 도주사건 발생을 가정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도주예방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도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주지원 보안관리대를 비롯한 충주경찰서 경찰관 등 2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홍성교도소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금연클리닉’ 실시

홍성교도소는 7월 12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홍성보건소와 연계해 ‘금연클리닉’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금연클리닉을 통해 총 7회에 걸쳐 직원들의 금연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직원들은 여러 가지 금연 방법을 배웠으며, 금연 의지를 더욱 확고히 새겼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몽골 법률집행대학 교도관 참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21일 몽골 법률집행대학 교도관 2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개방교도소 현황 설명을 듣고 수용가실, 공장동 작업현장, 만남의 집 등 구 내 시설을 둘러본 몽골 대표단은 선진화된 수용자 처우프로그램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2018년 제3차 명예퇴임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6월 28일 조성실 교정관의 명예퇴임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39년간 교정에 몸담았던 조성실 교정관의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임명장 수여식, 각종 기념패 및 꽃다발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또한 색소폰 연주 등 각종 화려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아쉬운 석별의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짜장면 식단화 행사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6월 27일 수용자들에게 짜장면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밀가루 반죽기와 제면기를 예산으로 구입, 취사장에 설치하였다. 7월부터는 직접 짜장면을 만들어 수시로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식단화하였다. 식단화 행사에 참여한 논산지소 교정협의회는 이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최규철

신규 교정공무원 임용식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7월 16일 윤형주 교감(번호사 6급 특채)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임용식에서 홍남식 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규 임용된 윤형주 교감은 “법무연수원 교육을 통해 교정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봤다”며 “많이 배우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광주교도소 / 교사 이병석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 실시

광주교도소는 7월 17일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신 케어 및 스트레스 측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전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행복한 삶과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외부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일선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되고 있다.

전주교도소 / 교사 김용희

짜장면 나눔 행사 실시

전주교도소는 7월 12일 이만세중사모(회장 조광석)의 후원과 봉사회원들의 참여로 전 수용자에게 짜장면 1,300그릇(260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한편 이날 전주교도소는 생업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만세중사모 회원에게 감사장을 전달, 고마움을 전했다.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욱

외부강사 초청 나라사랑 안보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6월 28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남북 정상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목포교도소 / 교사 이정균

외부강사 초빙 음주운전 근절교육 실시

목포교도소는 7월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지부 오주영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군산교도소는 6월 27일 이리동중학교 간사 및 학생 등 27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날 보라미 준법교실은 교정행정홍보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주제로, 법질서 준수 의식향상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기관 소개, 교정홍보영상물 시청, 법질서 교육 및 보호장비 시연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사랑의 헌혈 실시

제주교도소는 지난 7월 6일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봉사는 도내 혈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의 유지를 위해 마련되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관계자는 “제주교도소가 올해도 꾸준히 헌혈봉사에 참여하면서 제주도 내 혈액수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장흥교도소는 7월 6일과 7월 17일, 각각 장흥 유치중학교와 관산 남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준법교실은 교도관 소개, 법질서 준수 교육,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뢰과 등 교도소 내부를 참관하게 하는 시간도 진행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국외 훈련결과 보고회 실시

해남교도소는 7월 5일 청사 2층 교육실에서 윤동호 교사 훈련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교정청 국외훈련을 다녀온 윤동호 교사의 훈련결과를 보고한 이날 직장교육에서는 캐나다의 교정행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루어졌다. 특히, 조사, 징벌 과정을 중점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보고되었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사랑의 헌혈 실시

정읍교도소는 7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많은 직원들은 짧은 교대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헌혈 행사에 참가하였다. 한편 정읍교도소는 2015년 전북혈액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매년 반기별로 헌혈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NEWS

교정공제회

자산운용규정 개정 의결

교정공제회는 7월 9일 제26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산운용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현 교정공제회 자산운용규정에는 투자의 검증 등 운용에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산운용지침서를 제정하였다. 교정공제회는 지난해 금융투자 전문 직원을 채용한 데 이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투자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국군교도소

여주교도소 참관 실시

국군교도소는 7월 26일 교정행정업무의 발전과 수용자 처우기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여주교도소의 시설과 수용자관리시스템, 민원처리시스템,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참관하며 국군교도소 교정행정 업무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군교도소와 여주교도소는 지난 2016년부터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교정행정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류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제주교도소



해남교도소

서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위 황미경



수용자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기여

여성 수용자의 직업훈련과정인 점역교정 담당으로서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며 수용자를 교육하였다. 또한, 직업훈련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서적을 교육 장소에 비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여 여성 수용자의 고충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 시에는 개청요원으로 근무하며 교정사고 예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였다.

대전

충주구치소
교위 김대수



교정사고 예방 철저 및 지속적인 봉사활동 실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수용자가 상실감에 빠졌다는 모습을 발견하고 관련 과와 정보를 공유, 심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등 사전 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으로 교정사고를 방지하였다. 또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에 동참하여 불우가정에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직원 봉사동호회인 다은봉사단을 통해 연탄배달, 도배장판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대구

경북북부제3교도소
식품위생서기 김지은



위생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

원칙에 입각한 부식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육류 및 생선 등 생물형 부식물에 대한 유통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매일 1회 이상 식품 위생 상태 및 창고를 점검하여 주·부식 창고를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식중독 등 위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영양이 풍부한 농·수산물의 소요량을 수용인원 및 급식계획에 따라 정확히 산출하여 급식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광주

장흥교도소
교위 윤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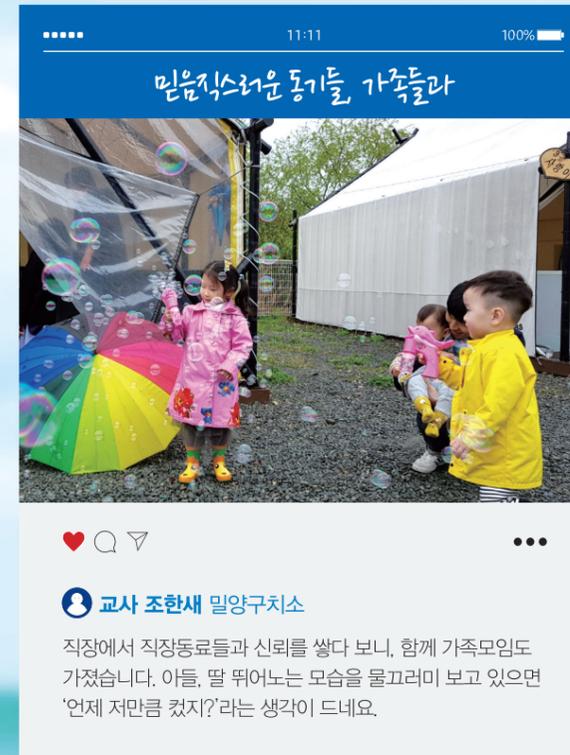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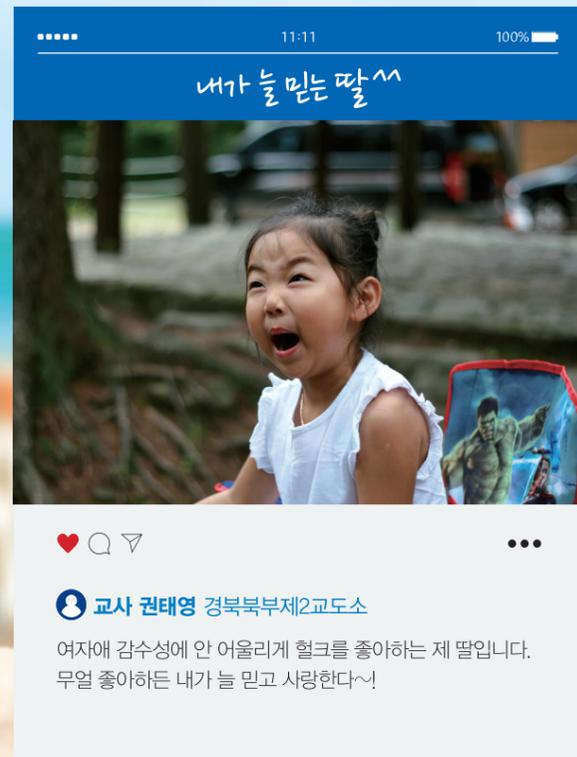
수용자 관찰 및 심층상담으로 수용질서 확립

목공장 담당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원칙에 입각한 적극적인 근무를 해왔다. 보안과 중앙통제실 및 기동순찰 근무 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미지정 및 목공장 등 직원들이 기피하는 근무 장소를 지원하여, 수용자를 면밀히 관찰하였으며 수용자와의 1:1 심층상담을 통하여 수용질서를 확립하였다.

모범공무원입니다
소개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로 일상을 잇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월간 <교정> 8월호 교정스타그램에서는 상대, 혹은 내 자신을 신뢰하며 일상을 보낸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가치로 일상을 따뜻이 물들이는 이들의 모습들을 감상해 보세요.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 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사진과 짧은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문화상품권(만 원 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의 테마 컬러는 'PURPLE', 주제는 '창의'입니다」

'창의'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1MB 이상)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 소속, 직급, 이름, 휴대폰 번호 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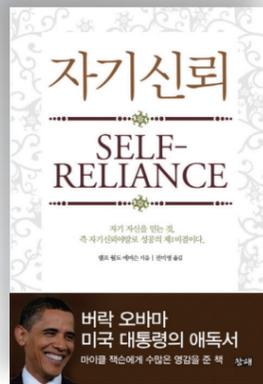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책들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덕목인 신뢰. 그럼에도 타인은 물론, 나 자신과도 쉽게 신뢰를 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뢰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들을 통해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신뢰의 속도

스티븐 M. R. 코비 지음 / 정병창, 김경섭 역 / 김영사

신뢰가 더 이상 실증하기 어려운 무형의 도덕적 논리가 아닌 유형의 경제 자산임을 증명하는 책이다.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저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신뢰였다고 밝힌다. 그리하여 저자는 스스로의 경험을 포함, 방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신뢰가 가지는 특별한 힘을 설명한다.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13가지 행동원칙과 4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책의 특징이다.



자기신뢰

랄프 왈도 에머슨(사상가) 지음 / 전미영 역 / 창해

미국 문화의 정신적 기둥을 세운 사상가이자 산문가,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 이 책은 인간이 자기신뢰를 기초로 행동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생각이 집약된 에세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며 단순한 자기계발서 이상의 통찰을 전하고 있다.

신뢰가 전부다

김대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신뢰 수준이 낮으면 사소한 문제로도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이때 생긴 부정적인 감정은 서로에 대한 비판과 적대적 행동으로까지 번지기 쉽다. 이 책은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직 내에서 신뢰를 쌓는 법부터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담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방법 등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월간 교정 이벤트

#1

특별함으로 간직될 일상을 선물합니다

긴장으로 가득한 나날을 벗어나 딱 하루라도 문화를 즐기며 힐링하고 싶다면? 월간 <교정> '어느 멋진 날'에 초대합니다.

3인 이내의 동료직원과 함께 신청해주세요.
공연 관람의 기회와 간식 일체를 제공합니다.



#2

자녀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세요

바쁜 일상으로 자녀와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면, 월간 <교정> '아빠! 어디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가족이 함께 즐거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거주지 주소와 참여할 가족의 인원수를 꼭 말씀해주세요.



텃밭 가꾸기 체험



우크렐레 연주 배우기



접수 방법

1. 간단한 신청 사연을 적어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로 보낸다. (소속, 직급, 이름, 전화번호 필수!)
2. 당첨 전화가 오면 즐겁게 받는다.

* 특별한 날이 더욱 오래 기억되도록, 기념사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교정>에 실어드립니다.

1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과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1인당 월 60~80만원, 1~2년간)
※ 조기단축 사업장 우대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1~3년간)
- ◆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1인당 월 최대 40만원, 1~2년간)
-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지원(임금보전비용의 80% 한도)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고용창출지원금 연계 지원



고용노동부